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조 안 진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조 안 진


인 준 서


조안진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이 명 희 

심사위원 황 수 자 

심사위원 김 소 영 

심사위원 김 미 영 

심사위원 김 경 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20대~5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는 '적극성 상승', '자신감 보완', '타인의식',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의 5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신체매력성은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 두 하위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4개 요인을,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수용',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의 6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대~50대 성인여성 388명 이었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t-test, 일원변량 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적극성 상승의 경우에 30대~50대 여성이 20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적극적 상승, 변화의 즐거움, 타인의식, 자기가치 표현은 대학원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서도 대학원졸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감 보완에서는 기혼 여성이 높았으며, 자기가치 표현의 경우에는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적극

성 상승, 자기가치 표현, 총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서 경영관리직이 다른 직업군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화장의 기대효과 중 적극성 상승과 변화의 즐거움이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가 많을수록 적극성 상승이 높았으며, 화장품 구입비가 낮을수록 자신감 보완이 높았다.

신체매력성 중에서 개인적 신체매력의 경우에 4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체매력성의 중요도와 자기의 개인적 신체매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결혼여부별로 보면 미혼이 기혼보다 사회적 신체매력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직업별로는 경영관리직이 사회적 신체매력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개인적 신체매력성에서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로 40만원 이상 지출하는 집단이 개인적 신체매력성과 총 신체매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과제 난이도 선호, 자신감, 총 자기효능감은 공무원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군이 높은 자기조절 효능감을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 중에서 자기수용의 경우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가 낮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의 경우 20대가 높았고, 50대가 낮게 나타났다. 자기수용과 삶의 목적은 학력이 높은 대학원졸이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는 대학생이 높았으며, 개인적 성장과 총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과 대학원졸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이 미혼보다 높은 자기수용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높은 자기수용을 보였고,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은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나,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별로는 상대적으로 구입비가 적은 집단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둘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 타인의식,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이 사회적 신체매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신체매력성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과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신체매력성은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이 신체매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기효능감에서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 변화의 즐거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과제 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과 타인의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전체적인 자기효능감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목적과 환경 통제력,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수용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과 변화의 즐거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심리적 안녕감에는 자신감 보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신체매력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조사결과 사회적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 신체매력성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과제 난이도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에는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에는 사회적 신체매력성이 긍정

적으로, 개인적 신체매력성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매력성 중에서 사회적 신체매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수용에는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삶의 목적에는 사회적 신체매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개인적 신체매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환경 통제력과 개인적 성장에는 사회적 신체매력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은 동시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개의 독립변인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은 동시에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 중 자기수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으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0대 여성들이 화장의 사회심리적 효과에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고학력, 고소득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가 신체매력성과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이 신체매력성과 자기

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화장이 예뻐지는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넘어 타인에 대한 예의수행은 물론 화장을 하였을 때 자신감이 상승되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돕는 사회심리적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
II. 이론적 배경	5
1. 화장의 사회심리적 효과	5
2. 신체매력성	9
3. 자기효능감	13
4. 심리적 안녕감	19
III. 연구 방법	25
1. 연구문제	25
2. 측정도구	26
3.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29
4. 자료분석	31
IV. 연구 결과 및 논의	33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분석	33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42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신체매력성	54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자기효능감	58

5.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64
6. 신체매력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70
7.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79
V. 결론 및 제언	87
1. 요약 및 결론	87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92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28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30
<표 3> 자료분석 내용 및 측정방법	32
<표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요인분석	35
<표 5> 신체매력성 요인분석	37
<표 6> 자기효능감 요인분석	39
<표 7> 심리적 안녕감 요인분석	41
<표 8>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44
<표 9>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매력성	47
<표 10>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49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52
<표 1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사회적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	55
<표 1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개인적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	56
<표 1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	57
<표 15>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9
<표 16>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과제 난이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	60
<표 17>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61

<표 1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62
<표 19>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63
<표 20>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64
<표 2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삶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	65
<표 2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환경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66
<표 2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67
<표 2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68
<표 25>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69
<표 26> 신체매력성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70
<표 27> 신체매력성이 과제 난이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	71
<표 28> 신체매력성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72
<표 29> 신체매력성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72
<표 30>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73
<표 31> 신체매력성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75
<표 32> 신체매력성이 삶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	76
<표 33> 신체매력성이 환경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76
<표 34> 신체매력성이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77
<표 35> 신체매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87
<표 36>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80
<표 37>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과제 난이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	81

<표 3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82
<표 39>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83
<표 40>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84
<표 4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환경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85
<표 4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8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의 소망과 더불어 아름다워지려는 여성들의 욕망은 지속되고 있다.

미의 개념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 관습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되므로 시대마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현대에서의 미의 개념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단순한 치장 행위보다는 복잡한 인간의 미적 가치관과 관련된 특성이 중요한 생활 문화가 되었고, 외모가 여성의 자기정체성이나 개체성과 동일시되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여성의 의무인 것처럼 되었다(김민제, 2011, p. 1).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위상이 상승됨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기회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모가 중요한 사회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한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하종경, 2009).

이러한 사회, 문화의 변화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욕구를 양적,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여성들은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과 외모지상주의의 만연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게 되었으며, 창조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미적 표현이 다양화되고 개성을 추구하게 되었다(Grahan & Kligman, 1985, pp. 83-85).

Cash & Pruzinsky(1990)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더 현명하며, 더 사교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능동적으

로 살아가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즉, 호감을 주는 이미지가 사회적 성공을 가져다주며, 적절한 외모관리가 그 사람의 일에 대한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 평가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완할 뿐 아니라 과시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화장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를 보다 좋은 인상으로 보이길 희망하게 되었다(하종경, 2009).

화장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장식적 의미로 현대사회에서 의복과 함께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이미지 메이킹의 필수요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장은 매너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동기로 자아실현의 수단이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결점을 커버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물리적인 측면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지영, 박길순, 2011).

또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지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필요한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은 화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며(문혜경, 유태순, 2001), 조기여, 유태순(199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생활이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드러나고, 화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은 화장을 통하여 자기의 매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본인만의 개성을 표출하거나,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의 변신을 꾀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의 얼굴에 직접 행해지는 화장은 단순히 외적인 치장에서 나아가 인간의 내면까지 관리하는 사회심리학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수경, 강경자(2007)는 화장은 사회적 기술에 속하며,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모델로서 사회적 매너 중 하나임을 밝혔다. 이에 화장이 갖는 대인적인 동기가 적극적인 자기주장과 대인적인 조화, 배려를 피하는 반면 개성을 표현하고, 사회적인 순응성과 이면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여성들의 경우 총체적인 신체매력성 지각이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Aune & Aune, 1994) 자신들의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과 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Cash(1990)는 신체매력성이란 개인이 선천적으로 갖는 안정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현대인들이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매력을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아름다움이란 선천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기창조(self-created)의 산물이며, 매력적인 외모를 달성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화장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신체적 자기가 가지는 사회심리적 의미로 신체는 자기에게나 타인으로부터 직접 보이고 접촉되는 사회적 대상이기도 하므로 여성들의 심리와 그들의 신체 만족이 화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Rudd, 2000). 그러므로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자아의식을 더 자극하며, 신체에 만족하는 여성은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화장은 단지 외모를 가꾸는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인 관계를 지속시키며,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사회적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의 화장동기(노선옥, 2011), 화장을 통하여 느끼는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문혜경, 유태순, 2003; 이지영, 박길순, 2011; 정미실, 2007), 화장행동(박정혜, 2002; 최수경, 2007; 최수경, 강경자, 2007), 화장이미지(강명주, 2008; 김민제, 2011; 양정순, 2009)등 개인적인 현상에만 치중하였으며,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화장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장을 함으로써 얻어질 것이라 기대되는 사회심리적 효과와 신체매력성 지각에 따라 여성이 느끼는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가 여성에게 어떻게 동기화되어 표출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화장의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화장의 사회심리적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뷰티산업에서 여성 소비자들의 내적 특성을 파악하고, 세분화된 목표시장에 대한 차별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제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20대~5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실증적 연구는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을 밝힌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밝힌다.

셋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넷째,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다섯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화장의 사회심리적 효과

현대 사회는 문화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외모가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승인욕구는 인간 본래의 욕구이며, 단정한 외모와 신체매력은 타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大坊 郁夫, 神山 進, 2005, pp. 171-172). 그러므로 화장은 외모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인관계 적응에서 빠질 수 없는 수단이 된다.

화장이란 위생·관리적, 장식적 측면의 행위이며, 분·연지 등을 바르고 매만져 본래 타고난 얼굴을 곱게 꾸민다는 의미와 머리카락의 매무새를 매만져 맵시를 낸다고 정의할 수 있다(류지효, 2005, pp. 6-7). 즉, 화장은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고, 약점을 수정하거나 위장하는 수단으로써 외모를 커버하거나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된다(김성희, 2009).

이러한 화장행위는 ‘변신하는 것’으로 얼굴의 특징을 조작하여 인상을 바꾸는 것과 ‘치장’으로써 자신의 특징을 강조하거나, 일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주었으면 하는 승인 욕구의 기대 표현이며, 화장을 함으로써 자존심을 유지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인상조작을 의미한다(大坊 郁夫, 神山 進, 2005).

또한 화장은 성인이 되었다는 성숙의 의미를 지니며, 여성들이 시간과 장소 또는 역할에 맞게 화장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들의 몸가짐도 조심스러워지는 자기조절 기능과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성스러움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화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으로 인한 사회화된 자기개념을 내면화하게 된다(김기범, 차영란, 2006).

화장은 아름다워지려는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사회심리적 의미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예의를 갖추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능력을 평가받는 단서라 할 수 있다.

사회심리(social psychology)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관계를 갖는지” 사회속에서 생활하면서 보이는 행동특성을 의미하며(Feldman, 1995, p. 6), 개인의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이 다른 사람 앞에서 상상되거나 혹은 암시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Allport, 1985, p. 3).

따라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화장은 사회적인 자기표현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화순, 황춘섭(2002)의 연구에 따르면 화장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서 화장은 관계성 그 자체라 하였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는 화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입원 환자에게 화장을 인식시키면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資生堂研究所, 1993), 이는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서 의식하여 삶의 의욕을 높여 치유를 촉진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화장을 하면 대인적 적극성을 높여주어 내성적인 여성이 화장을 하였을 때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박은아, 2003),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고, 자신감을 얻으며, 타인과의 관계 강화와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냐’에 관심을 갖게 된다. 화장을 하는 것은 매력적인 용모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득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복이나 화장,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며,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을 갖는다(이화순, 2002). 그러나 개인차가 있어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기제시(self-presentation)에 대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상황에 맞는 자기제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적절한 자기제시의 대표적인 방법은 의복과 화장이며, 그 중에도 화장은 여성의 매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인 얼굴을 미적인 측면에서 향상시켜주는 것이라고 하였다(박은아, 2003).

따라서 여성의 화장행동은 개인적 욕구 즉, 자기 개념, 미에 대한 욕구나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기는 하나 이는 모두 사회적 소통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기대에 따라 여성들은 화장을 하고, 이러한 화장 행동은 자기 개념의 구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인식하려는 사회적 행동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화장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그 사람의 외모나 얼굴모양과 표정, 대화의 내용이나 몸짓 그리고 행위 이상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Graham, 1983).

화장에 대한 사회심리적 관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sh(1989)는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화장을 지운 상태보다 화장을 한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신체모습을 인식하였고, 화장의 유무에서 여성들의 매력을 평가하였으며, 남성들은 여성이 화장을 하였을 때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sh(1984)는 업무수행 평가에 있어서 매력없는 여성이 쓴 에세이보다 매력적인 여성이 쓴 에세이를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매력적인 사람의 언행이 모두에게 훨씬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화장을 통하여 매력적인 이미지 전달은 사회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장이 자신감과 사교성을 높인다고 보고 하였으며, 신체 불만족이 높을수록 화장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희(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

에 잘 적응하는 여성들이 아이섀도우, 콤팩트 등의 화장품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화순(2002)은 여성들에게 화장은 자의적인 표현이며, 아름다워지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서 예의라고 하였다. 화장 후 자신이 육체적으로 더욱 매력적이고, 더욱 건강하게 보인다고 인식하여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외출을 하고 싶다는 사회적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갖을 수 있다고 하였다.

김기범, 차영란(2006)의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을 인터뷰 분석한 결과, 여성들은 화장을 예뻐지기 위한 수단, 타인에게 잘보이기 위한 수단 등 수단적 의미와, 사회속에서 타인에 대한 예의 등의 사회성 차원, 성숙이나 어른으로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화장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및 심리적 만족감이나 자신감을 얻기 위해 역할이나 맥락을 고려한 자기표현 및 인상관리의 전략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화장행동은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역할 및 지위를 표현하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인정받으려는 사회적 행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장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미지로 재구성을 통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타인의 반응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를 지닌다.

2. 신체매력성

신체는 ‘사람의 몸’이라는 의미이고, 매력이라는 단어인 ‘Attractiveness’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 애교, 관심’ 등으로 해석되므로 신체매력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신체의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조경희, 2005, p. 8). 즉, 신체매력성이란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정의되는 것으로, 타인 혹은 타인의 상징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개인의 성향 또는 사회에서 이상화된 기준에 맞는 외모가 갖는 특성으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인지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Ko & Chung, 1992, pp. 48-49)

이유종(2010)에 따르면 신체적 매력 만족은 신체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해 느끼는 만족 또한 신체적 매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인 기준,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신체매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체형, 얼굴, 의상, 메이크업, 헤어, 액세서리 등이며, 이 외에도 표정, 자세, 목소리, 시선 처리 등이 타인에게 어떤 인상형성으로 전달된다(최승용, 이창욱, 2005)

특히 여성의 경우 신체매력성은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상적인 여성은 항상 자신의 얼굴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여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반면 신체매력성이 결여된 여성은 자신의 얼굴에 대해 비관적이며,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 한다(이화순, 2002, p. 32).

신체매력성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신체매력성 지각은 개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Kaiser(1997)에 따르면 신체매력성 지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지각하는 매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그 중요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개인의 신체매력성은 타인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사회적 단서로 신체는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 자산으로 인식되며, 아름다운 신체는 자신감과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매개체로서 사회적인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황윤정, 2007, p. 19).

Miller(1982)는 신체매력성은 사회 비교에서 언제나 두드러지는 속성이라고 하였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인지된 중요성, 대인지각 그리고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체매력성의 자기지각 차원은 영향력 있는 사회비교 속성으로 선택된다고 하였다.

즉, 신체매력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재미있고, 강하고,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직장을 얻을 때도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더 높은 임금으로 고용된다(Dipboye, 1997). 이러한 연구들은 대인관계에서 있어서 신체매력성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좋은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첫인상에서 느껴지는 신체매력성이 중요하다. Hansen(1998)은 신체 외모에서 얼굴의 생김새와 매력은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얼굴, 키, 몸매, 심지어 손, 발까지도 타인에게 어떤 인상으로 형성되어 전달된다고 하였다. 그 중 신체매력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얼굴매력성을 꼽을 수 있다.

Mahoney와 Finch(1976)는 여성들의 신체매력성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체중과 얼굴을 꼽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으며, Brown, Cash & Noles(1986) 역시 대다수의 연구자가 신체매력성을 조사할 때 주로 앨범사진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들어 신체매력성이 외모 중 얼굴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보았다(김준희, 정명선, 2012).

현대 여성들은 외모는 자신의 통제에 따라 얼마든지 가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신의 신체매력성을 높이기 위해 외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외모를 수정·보완할 뿐만 아니라 화장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를 보다 좋은 인상으로 보이길 희망하게 되었다. 이는 신체매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가운데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며, 신체 매력성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아져 개인적인 만족감과 사회적인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신체매력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체매력성과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명선(2003)은 대체적으로 신체매력성 자아지각 점수가 높은 집단은 외모관리 행동의 빈도가 중간 집단과 낮은 집단의 빈도보다 더 높았으며, 화장, 기능성 화장품 사용, 맛사지나 팩 사용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매력성 자아지각이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이 성형수술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신체매력성을 낮게 지각하는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김유성(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지각할수록 체중, 몸매관리, 피부관리를 통하여 심리적인 만족과 자심감을 얻고 싶은 기대욕구가 높은 반면, 실제 미용관리행동에서는 화장행동과 헤어행동을 가장 많이하여 기대욕구와 실제 미용관리행동간에 불일치를 보였다. 즉, 신체매력성이 높을수록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체매력은 자신의 신체 생김새와 장식된 의복이나 화장의 형태를 포함하여 지각되어지므로 신체 매력증진을 위한 외모관리행동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을 통한 신체적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감소시켜주고, 자기만족감을 높여줌으로써 행복감을 줄 수도 있다(이수경, 고애란, 2006).

Gabriel(1994)은 자아도취 점수가 높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매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자의식이 높은 여성들일수록 자신의 매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황진숙, 김윤희(2006)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만족도는 개인의 자아존중, 자기개념, 자기이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자신을 존중하며,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비하한다고 하였다.

화장과 신체매력성에 관해 Graham과 Johar(1981)의 연구를 살펴보면 화장한 여성은 화장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신체매력성 뿐 아니라 성격 측면에서도 보다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여성의 화장행동은 신체매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문화나 시대에 따라 매력 있는 신체의식의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신체에 대한 호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신체매력성의 사회적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황윤정, 2007).

그러므로 매력적인 외모를 갖기 위한 화장행동은 신체매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신체매력성은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닌 제 3자를 통하여 보이는 인상인 만큼 화장은 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매력적인 신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높이며,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므로 매력적인 외모를 갖기 위해 하는 화장행동과 신체매력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자기효능감

심리학 연구에서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함께 이해해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변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인지적 관점의 하나로 자기효능감 이론이 등장하였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특정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선택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으며, 장애에 직면하여 그 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가를 말한다(곽호근, 2008, p. 33.). 이러한 효능감은 과제에 대한 집중과 지속성을 통하여 성취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Schunk(1982)는 자기효능감을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고, 때로는 긴장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행위의 선택, 노력의 정도, 노력의 지속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모호하고 예견할 수 없으며 긴장을 주는 요소가 포함된 구체적 상황(specific situation)에서 자신이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Bandura(1999)는 자기효능감을 어떠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을 지각하는 특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애매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행동의 선택, 노력 및 끈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Wood, Mento & Locke(1987)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써 과제를 다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으며, 권대훈(2009)은 일정한 수준에서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신념, 즉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경험, 지식, 기술 보다는 그러한 경험, 지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Bandura(1999)는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기대를 통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효능기대감과 결과기대감을 제시하였다. 효능기대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고, 결과기대는 특정 행동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뜻한다.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효능기대는 행동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며, 어떤 행동을 할지는 결과기대에 달려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성공을 예상하며, 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더 끈기있게 노력하며,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때 그 상황을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수행 과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과제 수행여부, 노력의 지속성, 개인의 성취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희영, 2009, p. 11). 서현진(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회피할 두려움보다는 도전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실패 앞에서는 노력을 고조시키며, 실패의 원인을 과제 수행자의 노력 및 지식, 기술의 부족으로 돌리고 실패 후에도 자기효능감을 빠르게 회복한다. 또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통제할 수 있다. 반면, 낮은 효능감의 소유자는 자신이 어렵게 생각하는 과제를 개인적인 위협으로 인지하고 회피하며, 개인적인 약점, 자신이 봉착할 장애, 어려운 결과를 깊이 생각한다. 또한 실패 후에 자기효능감 회복이 늦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 앞에서 노력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며, 한번의 실패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고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직·간접적인 성패의 경험에 따라 자기 능력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는 것으로 모든 심리학적 처리 방법은 자기효능감을 변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지각은 사회적,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며, 자기효능감이 4가지 정보 자원인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정서적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Bandura, 1999).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획득된 정보는 인지적 평가를 거쳐 처리하고, 변형되어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효능감의 정보원을 통하여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정해순, 2006), 증진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과제나 상황으로 전이되고 일반화될 수 있다.

Bandura(1999)에 의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면 ‘성공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s)’은 자기효능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써 성공적인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고, 실패의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킨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포기하

지 않고, 실패에도 빨리 회복된다. 다음으로 ‘대리적 경험(vicarious experiences)’은 자기효능감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요소로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대부분의 활동은 그것을 측정할 절대적 척도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경험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은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가 자기효능감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언어적 설득은 수행자로 하여금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생리적·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는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때 신체적 상태에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불안감이나 혐오감은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생리적 상태는 신체기능과 지구력을 요구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상태는 다양한 부분에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Bandura(1999)에 의하면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이 독자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개인이 느끼는 자기효능감에 따라 행동결과와 목표수행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과제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행동의 지속성과 인내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자신감, 과제선호, 자기조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김순미, 2008, p. 14).

먼저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의 강도를 의미한다. 즉, Bandura(1986)에 따르면 자신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과제수준 선호는 과제와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선호한다. 높은

목표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으로 나타나 다시 높은 효능감을 갖게 하는 긍정적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경희 A(2011)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나 과제수행 자체에 대한 불안은 과제 자체를 포기하거나 회피하게 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과제를 선택하며, 노력의 양과 지속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 효능감은 수행상황 속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자기조절 전략 혹은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김현정, 2009, p. 12). 즉,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판단, 자기 관찰인 인지과정과 자기반응 동기과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효능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 행동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장미선(2003)은 외모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전준선(2006)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외모만족도가 높고,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조기여(1997)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옷을 입을 때나 입고 난 후 달라진 모습에 더 많이 즐거워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옷이 자기가치의 정도를 더 많이 나타내 주고, 자신의 이미지가 새로워진다고 느끼므로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옷을 입는다고 하였다.

이현옥, 구양순(200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객관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요인이며, 외모 또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Hong(2008)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외모지향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외모지향성이 높았고, 외모태도에는 대중매체 노출도와 상

호작용효과가 나타나, 매체 고노출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에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외모태도의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하며,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필요한 자신감 회복을 도움으로써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해준다.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외모도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기효능감과 외모관리 행동은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행동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행동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변인이라고 판단된다.

4. 심리적 안녕감

인간은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 하거나 또는 그 행동이 가치를 가질 때 보람을 느끼게 되며, 심리적·정신적 욕구를 충족하여 정신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흔히 행복한 삶이란 스트레스와 심리적·신체적 고통이 없고, 만족스러우며, 즐거운 순간들만 계속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나 부정적 경험, 심리적 고통과 불안감 등을 피할 수 없다(문정순, 2010). 따라서 어렵고 힘든 문제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행복(happiness)등의 다양한 용어로 진행되어 왔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학 분야에서의 ‘안녕감’은 ‘행복감’으로 보는 ‘hedonic well-being’과 ‘자기 실현적 관점’으로 보는 ‘eudaimonic well-being’으로 구별된다.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안녕감은 쾌락획득과 고통회피로 규정되며, 주관적 안녕감으로 평가되어왔다.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부정적 기분이 없으며, 긍정적 기분만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Ryan & Deci, 2001).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은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 혹은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현재의 삶에서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을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측정한다면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은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측정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배선영, 박길순, 2011).

특히 Ryff(1989)는 한 개인이 행복해 하고 만족하고 있는 정도가 삶의 질을 대표한다는 주관적 안녕감에 반대하며,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단지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신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well functioning)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등장하게 되었다(이서연, 2008).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실현적 관점으로 인간의 행복은 단순한 쾌락만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삶 또는 진정한 자기(true self)와 일치하는 삶에서 얻어진다는 관점이며, 진정한 행복은 덕(virtue) 있는 삶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의미한다(이승아, 전병관, 2007).

즉, 주관적인 안녕감은 삶의 질에 대한 인지 및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주관적인 평가이고,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사회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다(류정희, 이명자, 2007). 이에 Ellison(1983)은 삶의 질은 물리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안녕감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Fordyce(1988)는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삶의 만족도, 주관적 삶의 질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 유사하고 상호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양명환(1988)은 심리적 안녕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일상생활의 사건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느끼는 정서로서,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나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개인의 지각된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행복감 또는 전체적인 감정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

하였으며(McDowell & Newell, 1990; 이경희B 2011에서 재인용), 황진숙, 김윤희(2006)는 개인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서적 느낌이나 인지적 판단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의 관점에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심리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Ryff, 1989),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긍정적 대인관계를 지속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또한 환경을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차경호, 2004).

삶의 질 또는 행복은 개인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개개인의 행복을 연구하여 왔다(Ryff, 1989).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6개의 척도가 개발되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박혜원, 2013).

‘자아수용(seif-acceptance)’은 자기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리적 현상 또는 자신의 느낌, 생각, 행동, 가치관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신정인, 2011). 다음으로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는 타인과 긍정적 유대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Becker, 1992).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따뜻하고 신뢰있는 대

인관계는 정신건강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며, 성숙의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Ryff, 1989). 다음으로 ‘자율성 (autonomy)’은 ‘스스로 법칙을 부여하다’라는 뜻으로 자율적 독립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의 수준을 의미한다(염계화, 2005). 또한 ‘환경 지배력(environmental leadership)’은 자신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능력으로 복잡한 외적인 활동계획을 잘 조절하고, 주위에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개인적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한다(박혜원, 2013). 다음으로 ‘삶의 목적(purpose in life)’은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고,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박미선, 2011),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은 자기실현에 관련된 것으로써 지속적인 잠재력 개발 과정을 포함한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경험에 열려 있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된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부단히 자신을 개발하고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에 근접하려고 노력한다(신정인, 2011).

Ryff(1989)는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들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행복감에만 초점을 둔 주관적 안녕감 척도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가 우리나라 성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위차원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서 변별이 가능한 요인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한국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학, 심리학 분야 연구자들은 특히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신체상과 외모의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육근영, 윤지원, 김근향, 박지혜

(2009)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긍정적일수록, 선호하는 체형이 마른체형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이상적인 신체상과 실제 자신의 신체상의 차이가 적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연구를 통하여 신체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류학 분야의 연구자들도 외모관리행동과 관련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황진숙, 김윤희 (2006)의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목적,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개인적 성장, 환경지배력, 책임감의 7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일상적 외모관리집단, 과격한 체중조절집단,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집단, 무관심집단의 외모관리행동을 조사한 결과 과격한 체중조절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집단은 외모 때문에 체중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영향이나 책임감, 삶의 목적 등 심리적 요인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체중조절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아의 인식정도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달라지며, 또한 자아의 인식 정도와 심리적 안녕감은 신체만족감과 외모관리행동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선영, 박길순(2011)의 심리적 안녕감과 네일관리 행동간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개인성장과 삶의 목적에서 네일관리행동의 개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네일관리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평가에 다양한 변모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혜원(2013)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여성의 자기표현, 외모관리행동 및 외

모만족이 각각 독립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자기표현의 상대적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 이는 외모관리행동을 통한 비언어적인 자기제시보다는 언어적, 행동적인 자기표현이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신체매력성과 자기효능감,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삶에 필수적 요건이라는 것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장이 대인관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그에 따른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대~5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 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심리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 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을 밝힌다.

연구문제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5.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6.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7.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동시에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구통계적 변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으로 구성되었다.

1) 인구통계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연령, 학력, 결혼여부, 직업, 소득,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나누었으며, 학력은 고졸, 대학생, 대졸, 대학원졸로 분류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결혼여부는 미혼, 기혼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업은 학생, 사무직, 전문직, 공무원, 서비스직, 경영관리직, 가정주부, 기타로 나누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에서 800만원 이상으로 나누었고,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는 10만원 미만에서 6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는 조기여(1997), 이화순(2002), 서은혜(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대한 하위요인은 ‘적극성 상승’, ‘자신감 보완’, ‘타인의식’,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하였다.

3) 신체매력성

신체매력성은 이유종(2010), 황윤정(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설문지는 1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하였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9), 장미숙(2010), 김현정(2009), 정희영(2010), 이경희A(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설문지는 1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 조절 효능감’, ‘자신감’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하였다.

5)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 하태민(2009), 박혜원(2013), 김금순(2011), 신정인(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설문지는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은 ‘자기수용’,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대인 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하였다.

이상의 측정도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변수	내용	문항 수	측정방법	출처
인구통계적 변인	연령, 학력, 결혼여부, 직업, 가정의 월평균 소득,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	6	선택형	연구자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적극성 상승 자신감 보완 타인의식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	26	5점 Likert	조기여(1997) 이화순(2002) 서은혜(2012)
신체매력성	사회적 신체매력성 개인적 신체매력성	14	5점 Likert	이유중(2010) 황윤정(2007)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16	5점 Likert	Bandura(1999) 장미숙(2010) 김현정(2009) 정희영(2010) 이경희A(2011)
심리적 안녕감	자기수용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	24	5점 Likert	Ryff(1989) 하태민(2009) 박혜원(2013) 김금순(2011) 신정인(2011)
합계		86		

3.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5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2013년 8월 12일에서 8월 29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총 42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미비하거나, 불성실한 32부를 제외한 후 38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인구통계적 변인 6문항,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26문항, 신체매력성 14문항, 자기효능감 16문항, 심리적 안녕감 24문항으로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을 <표 2>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25.0%, 30대 25.0%, 40대 25.8%, 50대 24.2%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 27.1%, 대학생 25.3%, 대졸 28.9%, 대학원졸 18.8%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47.2%, 기혼이 52.8%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이 27.3%, 사무직 8.2%, 전문직 17.0%, 공무원 2.6%, 서비스직 13.1%, 경영관리직 4.9%, 가정주부 20.4%, 기타 6.4%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8.0%, 100만원~200만원 미만 12.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3%, 300만원~400만원 미만 15.2%, 400만원~500만원 미만 17.3%, 500만원~700만원 미만 14.2%, 700만원 이상 14.4%로 나타났다.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로는 10만원 미만인 50.5%, 10만원~20만원 미만 30.2%, 20만원~40만원 미만 11.3%, 40만원 이상 8.0%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N=388)

변인	항목	N	%
연령	20대	97	25.0%
	30대	97	25.0%
	40대	100	25.8%
	50대	94	24.2%
학력	고졸	105	27.1%
	대학생	98	25.3%
	대졸	112	28.9%
	대학원졸	73	18.8%
결혼여부	미혼	183	47.2%
	기혼	205	52.8%
직업	학생	106	27.3%
	사무직	32	8.2%
	전문직	66	17.0%
	공무원	10	2.6%
	서비스직	51	13.1%
	경영관리직	19	4.9%
	가정주부	79	20.4%
기타	25	6.4%	
소득	100만원미만	31	8.0%
	100만원~200만원미만	49	12.6%
	200만원~300만원미만	71	18.3%
	300만원~400만원미만	59	15.2%
	400만원~500만원미만	67	17.3%
	500만원~700만원미만	55	14.2%
700만원 이상	56	14.4%	
화장품 구입비	10만원미만	196	50.5%
	10만원~20만원미만	117	30.2%
	20만원~40만원미만	44	11.3%
	40만원이상	31	8.0%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타당도 분석으로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을 요인으로 묶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동시에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

<표 3> 자료분석 내용 및 측정방법

No.	내 용	측정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빈도분석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차원파악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5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6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동시에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분석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26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 적재치가 .30 이하인 6문항을 제외한 20문항에 대해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를 적극성 상승, 자신감 보완, 타인의식,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 등 5개의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적극성 상승과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은 이화순(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타인의식과 자신감 보완은 서은혜(2012)의 타인에 대한 예의 수행, 자신감 향상과 유사하였다.

요인 1은 적극성 상승에 관한 내용이며, ‘나는 화장을 하면 목소리 톤이 밝아진다’, ‘나는 화장을 하면 걸음걸이가 활발해진다’ 등 총 4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3.728이고, 분산은 14.337%, 신뢰도는 .786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자신감 보완에 관한 내용이며, ‘나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 시선을 잘 마주칠 수 없다’, ‘나는 화장을 하지 않고 외출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 등 총 4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유치는 3.473, 분산은 13.356%, 신뢰도는 .822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타인의식에 관한 내용으로 ‘화장을 하지 않고 타인을 만나는 것을 실례라 생각한다’, ‘화장을 하는 것은 기본 에티켓이다’ 등 4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3.120, 분산은 11.999%, 신뢰도는 .745로 나타났다.

다.

요인 4는 변화의 즐거움에 대한 내용으로 ‘나는 화장을 하면 같은 옷을 입더라도 잘 어울려 보인다’, ‘화장을 한 내 모습을 보면 더 여성스러워 보인다’ 등 총 4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2.812, 분산은 10.814%, 신뢰도는 .822로 나타났다.

요인 5는 자기가치 표현으로 ‘만나는 사람과 장소에 따라 화장법을 바꾼다’, ‘유행하는 화장에 관심이 많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4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유치는 2.570이며, 분산은 9.884%, 신뢰도는 .779로 나타났다.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대한 누적변량은 60.392%이며, 전체 변인의 Cronbach의 알파 신뢰도는 .67로 나타났다.

<표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요인분석

(N=388)

요인	문항	1	2	3	4	5
적극성 상승	나는 화장을 하면 목소리 톤이 밝아진다.	.738	.125	.190	.074	.054
	나는 화장을 하면 걸음걸이가 활발해진다.	.663	.338	.111	.169	.233
	나는 화장을 하면 마음에 의욕이 생긴다.	.527	.231	.386	.149	.306
	나는 화장을 하면 대화에 잘 참여하고 동조한다.	.473	.291	.318	.091	.318
	고유치 3.728 분산(%) 14.337 누적변량(%) 14.337 신뢰도 .786					
자신감 보완	나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 시선을 잘 마주칠 수 없다.	-.226	-.803	-.040	.013	-.114
	나는 화장을 하지 않고 외출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	.093	.790	.219	.155	.117
	나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초라해 보인다.	-.133	-.732	-.190	-.282	-.035
	나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아파 보인다.	-.063	-.656	-.334	-.075	-.129
	고유치 3.473 분산(%) 13.356 누적변량(%) 27.694 신뢰도 .822					
타인의식	화장을 하지 않고 타인을 만나는 것을 실례라 생각한다.	.278	.251	.730	-.049	.035
	화장을 하는 것은 기본 에티켓이다.	.217	.258	.670	.246	.253
	화장을 하면 더 성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243	.074	.639	.409	-.002
	사회생활에 있어서 화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167	.239	.623	.282	.158
	고유치 3.120 분산(%) 11.999 누적변량(%) 39.693 신뢰도 .745					
변화의 즐거움	나는 화장을 하면 같은 옷을 입더라도 잘 어울려 보인다.	.084	.239	.153	.803	.122
	화장을 한 내 모습을 보면 더 여성스러워 보인다.	.214	.151	.235	.652	.221
	나는 화장을 하면 화려해 보인다.	.489	.042	.111	.558	.188
	화장을 한 내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	.463	.052	.215	.515	.167
	고유치 2.812 분산(%) 10.814 누적변량(%) 50.508 신뢰도 .822					
자기가치 표현	만나는 사람과 장소에 따라 화장법을 바꾼다.	.161	-.028	-.088	.131	.777
	유행하는 화장에 관심이 많다.	.063	.204	.269	.094	.760
	화장은 나의 개성을 돋보이게 해준다.	.229	.112	.347	.363	.538
	외출해서도 화장을 고치는 등 신경을 쓴다.	.191	.386	.149	.274	.481
	고유치 2.570 분산(%) 9.884 누적변량(%) 60.392 신뢰도 .779					

전체신뢰도=.672

2) 신체매력성 요인분석

신체매력성 14문항에 대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 적재치가 .30 이하인 2문항을 제외한 12문항에 대해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신체매력성은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유종(2010)과 황윤정(2007)의 연구에서 신체매력성을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으로 분류한 결과와 일치한다.

요인 1은 사회적 신체매력성에 관한 내용이며, ‘매력적인 사람이 매력 없는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쉽다’, ‘신체매력은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데이트 상대자와 만날 때 신체매력은 어느정도 중요하다’ 등 총 8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5.179이고, 분산은 34.523%, 신뢰도는 .849로 나타났다.

요인 2는 개인적 신체매력에 관한 내용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내 몸은 섹시한 매력이 있다’ 등 총 4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유치는 2.831이고, 분산은 18.875%, 신뢰도는 .789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성의 고유값은 2.8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변량은 53.399%이다. 전체 변인의 Cronbach의 알파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표 5> 신체매력성 요인분석

(N=388)

요인	문항	1	2
사회적 신체매력성	매력적인 사람이 매력 없는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쉽다.	.784	.006
	신체매력은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734	.100
	데이트 상대자와 만날 때 신체매력은 어느정도 중요하다.	.719	.124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청결하게 보이고 싶다.	.701	.177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신체매력은 영향력이 있다.	.694	.155
	신체매력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669	.332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신체매력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	.606	.177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한다.	.481	.466
고유치 5.179 분산(%) 34.523 누적변량(%) 34.523 신뢰도 .849			
개인적 신체매력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171	.837
	내 몸은 섹시한 매력이 있다.	.216	.770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241	.713
	나는 옷을 입지 않은 내 몸이 마음에 든다.	-.049	.701
	고유치 2.831 분산(%) 18.875 누적변량(%) 53.399 신뢰도 .789		

전체신뢰도=.851

3) 자기효능감 요인분석

자기효능감 16문항에 대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 적재치가 .30 이하인 5문항을 제외한 11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자기효능감을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 4개의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은 김현정(2009)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과제 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은 정희영(2010), 이경희A(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요인 1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내용이며, ‘나는 사교 모임에서 어찌 할바를 모른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렵다’ 등 총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3.272, 분산은 14.226%, 신뢰도는 .832로 나타났다.

요인 2는 과제 난이도 선호에 관한 내용으로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재미있다’, ‘나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더 좋다’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유치는 3.261, 분산은 14.177%, 신뢰도는 .690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자기조절 효능감에 관한 내용이며,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한다’,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등 총 4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249이고, 분산은 9.777%, 신뢰도는 .621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자신감에 관한 내용으로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유치는 1.572이고, 분산은 6.833%, 신뢰도는 .693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고유값은 1.5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변량은 45.013%이다. 전체 변인의 Cronbach의 알파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표 6> 자기효능감 요인분석

(N=388)

요인	문항	1	2	3	4
사회적 자기효능감	나는 사고 모임에서 어찌할바를 모른다.	.703	.038	-.108	-.054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렵다.	.668	.100	-.065	-.093
	호감이 있더라도 사귀기 어려운 사람은 포기한다.	.550	.155	-.116	.125
	고유치 3.272 분산(%) 14.226 누적변량(%) 14.226 신뢰도 .832				
과제 난이도 선호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재미있다.	.132	.668	.186	.207
	나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일이 더 좋다.	-.105	.631	.049	.380
	고유치 3.261 분산(%) 14.177 누적변량(%) 28.403 신뢰도 .690				
자기조절 효능감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한다.	-.060	.105	.726	.048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128	.135	.640	.175
	나는 자립심이 강하다.	.206	.276	.631	-.327
	나는 어려운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	.218	.403	.582	-.255
	고유치 2.249 분산(%) 9.777 누적변량(%) 38.180 신뢰도 .621				
자신감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10	-.089	-.079	.642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086	-.077	.149	.360
	고유치 1.572 분산(%) 6.833 누적변량(%) 45.013 신뢰도 .693				

전체신뢰도=.826

4) 심리적 안녕감 요인분석

심리적 안녕감 24문항에 대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 적재치가 .30 이하인 6문항을 제외한 18문항에 대해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심리적 안녕감을 자기수용,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 등 6개의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자기수용과 삶의 목적은 신정인(2011)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환경 통제력과 개인적 성장은 김금순(2011)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대인관계와 자율성은 박혜원(201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요인 1은 자기수용에 관한 내용이며,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과거에 실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

었다고 생각한다’ 등 총 4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4.543이고, 분산은 15.667%, 신뢰도는 .768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삶의 목적에 관한 내용이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등 총 3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유치는 2.865이고, 분산은 9.879%, 신뢰도는 .722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환경 통제력에 관한 내용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의 2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2.392이고, 분산은 8.248%, 신뢰도는 .683로 나타났다.

요인 4는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나는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롭다고 느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 등 총 3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유치는 2.007이고, 분산은 6.922%, 신뢰도는 .657로 나타났다.

요인 5는 개인적 성장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3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유치는 1.715이고, 분산은 5.912%, 신뢰도는 .714로 나타났다.

요인 6은 자율성에 관한 내용으로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나의 결정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3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유치는 1.601이고, 분산은 5.519%, 신뢰도는 .652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고유값은 1.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변량은 52.148%이며, 전체 변인의 Cronbach의 알파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표 7> 심리적 안녕감 요인분석

(N=388)

요인	문항	1	2	3	4	5	6
자기수용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743	.061	-.015	.171	.011	-.077
	과거에 실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695	.182	.004	.104	.022	-.191
	나는 나 자신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다.	.649	.107	.198	-.035	.077	.141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하면 흐뭇하다.	.629	.049	-.049	.135	-.184	-.090
고유치 4.543 분산(%) 15.667 누적변량(%) 15.667 신뢰도 .768							
삶의 목적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060	.702	.318	.106	.209	.115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183	.682	.085	.113	.208	.249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085	.567	-.181	.060	.108	.142
	고유치 2.865 분산(%) 9.879 누적변량(%) 25.546 신뢰도 .722						
환경 통제력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180	.024	.765	.066	.014	.015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069	.301	-.602	.189	-.047	-.032
	고유치 2.392 분산(%) 8.248 누적변량(%) 33.795 신뢰도 .683						
대인관계	나는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롭다고 느낀다.	.057	.133	.056	.786	.072	.053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	.068	.024	-.085	.743	-.019	.196
	다른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083	.457	.144	.540	.097	-.005
	고유치 2.007 분산(%) 6.922 누적변량(%) 40.717 신뢰도 .657						
개인적 성장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022	.154	-.094	-.005	.691	-.038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105	-.108	-.212	-.116	.669	-.112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을 바꿔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 싫다.	.173	.341	-.016	.312	.402	.123
	고유치 1.715 분산(%) 5.912 누적변량(%) 46.629 신뢰도 .714						
자율성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나의 결정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046	.243	.081	.116	-.164	.718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	-.113	.120	-.351	.088	.128	.518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	.091	.235	.079	.152	.276	.486
	고유치 1.601 분산(%) 5.519 누적변량(%) 52.148 신뢰도 .652						

전체신뢰도=.865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연령에 따라 적극성 상승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0대가 3.34, 40대가 3.43, 50대가 3.31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3.10으로 나타났었다($p < .05$). 즉, 30~50대 여성은 20대보다 화장의 적극적 상승 기대효과가 높았다. 이는 이화순(2002)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화장에 따라 적극성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화장이 중요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력에 따른 적극적 상승의 차이를 볼 때 대학원졸이 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3.14로 낮은 적극적 상승을 보였다($p < .05$). 변화의 즐거움의 경우에 대학원 졸업자가 3.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과 대졸의 경우에는 각각 3.43, 3.47로 상대적으로 낮은 즐거움을 보였다($p < .01$). 타인의식의 경우에 대학원졸이 3.81로 가장 높았다($p < .05$). 자기가치 표현의 경우도 대학원졸이 3.52로 높게 나타났었다($p < .01$). 총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대학원졸이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은 집단이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은 자신감 보완을 보였으며, 자기가치 표현의 경우에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나($p < .01$), 기혼여성들은 출산과 가사노동, 사회생활을 병행하면서 변화된 외모에 자신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을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미혼여성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화장을 하였다.

직업별로는 적극적 상승에서 경영관리직이 3.72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과 사무직이 각각 3.13, 3.20으로 낮게 나타났다($p<.05$). 자기가치 표현의 경우에 경영관리직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3.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5$). 화장의 총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의 경우 전체적으로 경영관리직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은 3.21로 낮게 나타나($p<.05$) 다른 직업에 비해 경영관리직이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높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은 700만원 이상의 경우에 높은 적극성 상승을 보였으며, 소득이 낮은 경우에 낮은 적극성을 보였다($p<.05$). 변화의 즐거움의 경우에도 7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미만은 낮은 변화 즐거움을 보였다($p<.01$). 총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7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p<.05$) 고소득 집단이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 심리변화와 외모상승의 즐거움, 총 화장의 심리적 효용에서 사회계층 수준이 높은 상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서은혜(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에서는 40만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극성 상승을 보였으며, 10만원 미만이 상대적으로 낮은 적극성 상승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이는 외모관리비용이 높을수록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다는 서은혜(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8> 인구통계적 변인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변인	항목	적극성 상승		자신감 보완		타인의식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		총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연령	20대	3.10 ^b	.78	2.82	.57	3.63	.74	3.57	.59	3.39	.72	3.30	.40
	30대	3.34 ^a	.65	2.92	.54	3.64	.72	3.50	.64	3.27	.72	3.34	.43
	40대	3.43 ^a	.74	2.90	.51	3.66	.74	3.57	.64	3.33	.75	3.38	.47
	50대	3.31 ^a	.83	2.98	.54	3.60	.81	3.47	.71	3.18	.78	3.31	.52
	F	2.542*		2.217		.105		.492		1.997		.415	
	p	.039		.067		.981		.741		.094		.798	
학력	고졸	3.31 ^{ab}	.71	2.96	.51	3.61 ^{ab}	.70	3.43 ^b	.61	3.20 ^b	.66	3.30 ^b	.43
	대학생	3.14 ^b	.72	2.88	.53	3.59 ^{ab}	.73	3.58 ^{ab}	.59	3.34 ^{ab}	.71	3.29 ^b	.41
	대졸	3.33 ^{ab}	.78	2.95	.54	3.57 ^b	.75	3.47 ^b	.66	3.22 ^b	.77	3.31 ^b	.48
	대학원졸	3.46 ^a	.86	2.76	.61	3.81 ^a	.88	3.68 ^a	.75	3.52 ^a	.85	3.47 ^a	.53
	F	3.093*		2.065		2.702*		4.634**		4.929**		3.929**	
	p	.027		.104		.045		.003		.002		.009	
결혼여부	미혼	3.26	.75	2.82	.56	3.66	.76	3.58	.61	3.40	.72	3.34	.43
	기혼	3.33	.77	2.98	.52	3.61	.75	3.48	.67	3.20	.75	3.32	.48
	t	.843		9.417**		.368		2.677		7.028**		.216	
	p	.359		.002		.544		.103		.008		.642	
직업	학생	3.13 ^b	.77	2.83	.56	3.64	.73	3.57	.58	3.33 ^{ab}	.72	3.30 ^{ab}	.40
	사무직	3.20 ^b	.75	2.80	.49	3.55	.79	3.35	.68	3.13 ^{ab}	.81	3.21 ^c	.49
	전문직	3.44 ^{ab}	.65	2.90	.55	3.73	.74	3.66	.64	3.46 ^{ab}	.68	3.44 ^{abc}	.41
	공무원	3.55 ^{ab}	1.21	3.00	.65	3.88	.86	3.66	1.03	3.46 ^{ab}	1.12	3.51 ^{ab}	.70
	서비스직	3.31 ^{ab}	.75	2.98	.53	3.56	.76	3.44	.58	3.27 ^{ab}	.77	3.31 ^{abc}	.45
	경영관리직	3.72 ^a	.69	2.79	.54	3.89	.65	3.80	.65	3.55 ^a	.68	3.55 ^a	.45
	가정주부	3.27 ^{ab}	.75	3.00	.52	3.48	.77	3.41	.65	3.08 ^b	.73	3.25 ^{bc}	.50
	기타	3.40 ^{ab}	.71	2.94	.50	3.77	.73	3.49	.69	3.37 ^{ab}	.72	3.40 ^{abc}	.45
F	2.319*		1.123		1.354		1.934		2.094*		2.317*		
	p	.025		.347		.224		.063		.043		.025	

	100만원미만	3.19 ^b	.64	2.85	.66	3.47	.78	3.35 ^d	.69	3.06	.67	3.18 ^c	.38
	100만원~200만원미만	3.14 ^{ab}	.73	2.86	.53	3.55	.70	3.39 ^{cd}	.55	3.27	.61	3.25 ^{bc}	.40
	200만원~300만원미만	3.19 ^{ab}	.72	2.98	.46	3.44	.76	3.36 ^d	.63	3.25	.71	3.24 ^{bc}	.46
	300만원~400만원미만	3.27 ^{ab}	.59	2.95	.49	3.70	.59	3.45 ^{bcd}	.60	3.35	.72	3.35 ^{abc}	.39
소득	400만원~500만원미만	3.49 ^a	.71	2.83	.52	3.74	.79	3.68 ^{ab}	.64	3.27	.79	3.40 ^{ab}	.46
	500만원~700만원미만	3.22 ^{ab}	.80	2.92	.55	3.69	.68	3.63 ^{abc}	.60	3.40	.82	3.37 ^{abc}	.46
	700만원 이상	3.51 ^a	.98	2.90	.63	3.79	.90	3.74 ^a	.72	3.36	.81	3.46 ^a	.55
	F	2.535*		.585		1.643		3.251**		.745		2.194*	
	p	.015		.768		.122		.002		.634		.034	
	10만원미만	3.18 ^b	.72	2.95	.54	3.60	.75	3.48	.62	3.21	.70	3.29	.44
	10만원~20만원미만	3.33 ^{ab}	.73	2.93	.48	3.58	.71	3.51	.60	3.30	.70	3.33	.43
화장품 구입비	20만원~40만원미만	3.49 ^a	.86	2.74	.53	3.80	.81	3.67	.73	3.44	.87	3.43	.52
	40만원 이상	3.60 ^a	.80	2.76	.69	3.84	.81	3.71	.78	3.55	.90	3.49	.54
	F	3.111*		.908		1.449		1.487		2.020		1.979	
	p	.015		.423		.217		.205		.091		.097	

*p<.05 **p<.01 ***p<.0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결과,

a>b>c>d>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매력성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매력성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연령별로 개인적 신체매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40대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2.7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 < .001$). 총 신체매력성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사회적 신체매력성의 경우에 대학원졸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과 대졸이 3.64로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개인적 신체매력성의 경우 대학원졸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이 2.8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 < .001$). 총 신체매력성을 살펴보면 대학원졸이 높게 나타나 고학력 집단이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여부로 보면 미혼이 3.80으로 기혼보다 사회적 신체매력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p < .01$). 이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미혼 여성들이 면접에 있어서 외모가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데이트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욕구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업에 따라 사회적 신체매력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경영관리직이 3.99로 사회적 신체매력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사무직과 가정주부, 기타직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적 신체매력성에서는 공무원이 3.4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생과 기타직업이 낮게 나타났다($p < .05$).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사회적 신체매력성에서 700만원 이상이 4.01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이 3.4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신체매력성의 경우 역시 7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고, 100만원 미만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신체매력성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7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은 가장 낮았다($p < .001$). 이는 연령이 높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는 이 유중(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로는 개인적 신체매력성의 경우 20만원~40만원 미만과 40만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만원 미만은 낮게 나타났다($p < .001$). 총 신체적매력성은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 < .01$) 4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만원 미만과 10만원~20만원 미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9>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매력성

변인	항목	사회적 신체매력성		개인적 신체매력성		총 신체매력성	
		M	SD	M	SD	M	SD
연령	20대	3.80	.50	2.77 ^c	.71	3.46	.48
	30대	3.70	.61	2.94 ^{bc}	.62	3.44	.52
	40대	3.74	.61	3.21 ^a	.64	3.56	.54
	50대	3.66	.65	3.10 ^{ab}	.82	3.47	.61
	F	.807		6.083***		.748	
	p	.521		.000		.560	
학력	고졸	3.64 ^b	.57	2.96 ^{bc}	.67	3.42 ^b	.53
	대학생	3.77 ^{ab}	.52	2.81 ^c	.69	3.45 ^b	.47
	대졸	3.64 ^b	.62	3.13 ^{ab}	.70	3.47 ^b	.54
	대학원졸	3.95 ^a	.70	3.29 ^a	.80	3.73 ^a	.65
	F	4.285**		7.377***		4.593**	
	p	.005		.000		.004	
결혼여부	미혼	3.80	.58	2.95	.74	3.51	.53
	기혼	3.66	.60	3.05	.70	3.46	.54
	t	5.310*		1.901		1.083	
	p	.022		.169		.299	

직업	학생	3.81 ^{ab}	.50	2.80 ^b	.72	3.47	.48
	사무직	3.60 ^b	.61	3.02 ^{ab}	.76	3.40	.58
	전문직	3.82 ^{ab}	.71	3.17 ^{ab}	.69	3.60	.63
	공무원	3.75 ^{ab}	.88	3.40 ^a	.94	3.63	.85
	서비스직	3.67 ^{ab}	.55	3.01 ^{ab}	.66	3.45	.50
	경영관리직	3.99 ^a	.55	3.18 ^{ab}	.75	3.72	.52
	가정주부	3.61 ^b	.56	3.07 ^{ab}	.68	3.43	.47
	기타	3.57 ^b	.62	2.89 ^b	.73	3.34	.59
	F	2.061*		2.501*		1.622	
p	.047		.016		.128		
소득	10만원미만	3.49 ^c	.59	2.70 ^c	.78	3.23 ^c	.55
	10만원~20만원미만	3.55 ^{bc}	.51	2.92 ^{bc}	.59	3.34 ^{bc}	.43
	20만원~30만원미만	3.62 ^{bc}	.59	2.90 ^{bc}	.63	3.38 ^{bc}	.53
	30만원~40만원미만	3.73 ^{bc}	.58	2.84 ^{bc}	.60	3.44 ^{bc}	.48
	40만원~50만원미만	3.78 ^{ab}	.65	3.05 ^b	.77	3.54 ^b	.57
	50만원~70만원미만	3.78 ^{ab}	.54	3.05 ^b	.69	3.54 ^b	.49
	70만원 이상	4.01 ^a	.57	3.44 ^a	.80	3.82 ^a	.55
	F	3.860***		5.054****		5.818****	
	p	.000		.000		.000	
화장품 구입비	10만원미만	3.70	.56	2.87 ^b	.65	3.42 ^b	.50
	10만원~20만원미만	3.72	.58	3.08 ^{ab}	.70	3.51 ^b	.52
	20만원~40만원미만	3.70	.78	3.23 ^a	.82	3.54 ^{ab}	.72
	40만원 이상	3.95	.53	3.26 ^a	.87	3.72 ^a	.51
	F	1.826		4.679***		3.077*	
	p	.123		.001		.016	

*p<.05 **p<.01 ***p<.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결과,

a>b>c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연령, 학력, 결혼여부, 화장품 구입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총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공무원이 3.61로 가장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과제 난이도 선호의 경우에 공무원이 3.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p < .05$), 자신감의 경우도 공무원이 3.45로 ($p < .001$) 가장 높았으므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700만원 이상이 3.46으로 높은 과제 난이도 선호를 보였으며 ($p < .05$), 자기조절 효능감의 경우 700만원 이상이 3.65로 높게 나타났다 ($p < .01$).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을 높이 평가한 김금순(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10>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효능감

변인	항목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총 자기효능감	
		M	SD	M	SD	M	SD	M	SD	M	SD
연령	20대	3.45	.59	2.99	.66	3.41	.58	2.48	.76	3.08	.40
	30대	3.33	1.04	3.08	.72	3.33	.53	2.60	.69	3.09	.44
	40대	3.34	.62	3.24	.78	3.53	.61	3.02	2.73	3.28	.78
	50대	3.28	.51	3.19	.84	3.34	.68	2.63	.80	3.11	.43
	F	.858		1.653		1.671		1.752		2.351	
	p	.490		.160		.156		.138		.054	
학력	고졸	3.37	.54	3.10	.81	3.41	.55	2.74	.71	3.15	.36
	대학생	3.41	.59	3.06	.66	3.43	.57	2.57	.73	3.12	.38
	대졸	3.18	.57	3.13	.74	3.30	.64	2.88	2.68	3.12	.78
	대학원졸	3.52	1.31	3.30	.86	3.53	.68	2.47	.82	3.21	.59
	F	3.342		1.281		1.968		1.149		.386	
	p	.019		.281		.118		.329		.763	

결혼여부	미혼	3.39	.87	3.05	.75	3.40	.59	2.68	2.11	3.13	.66
	기혼	3.31	.55	3.19	.75	3.41	.62	2.69	.70	3.15	.41
	t	1.374		2.924		.034		.000		.065	
	p	.242		.088		.854		.984		.799	
직업	학생	3.51	1.02	3.03 ^b	.64	3.40	.55	2.48 ^b	.76	3.10 ^b	.44
	사무직	3.20	.44	3.33 ^b	.85	3.34	.59	2.59 ^b	.67	3.11 ^b	.33
	전문직	3.30	.58	3.23 ^b	.71	3.45	.60	2.59 ^b	.70	3.14 ^b	.44
	공무원	3.40	1.03	3.80 ^a	.92	3.80	.93	3.45 ^a	8.34	3.61 ^a	2.07
	서비스직	3.37	.54	3.12 ^b	.73	3.36	.58	2.71 ^b	.64	3.14 ^b	.39
	경영관리직	3.41	.53	3.11 ^b	.86	3.50	.63	2.61 ^b	.76	3.15 ^b	.33
	가정주부	3.20	.58	3.00 ^b	.85	3.35	.65	2.68 ^b	.85	3.06 ^b	.46
	기타	3.36	.41	3.14 ^b	.64	3.42	.56	2.84 ^b	.53	3.19 ^b	.28
	F	1.515		2.263*		.918		5.401***		5.381***	
p	.161		.029		.492		.000		.000		
소득	100만원미만	3.10	.60	2.97 ^b	.73	3.27 ^b	.62	2.55	.80	2.97	.35
	100만원~200만원미만	3.45	1.33	3.27 ^{ab}	.65	3.28 ^b	.45	2.60	.60	3.15	.41
	200만원~300만원미만	3.29	.58	3.03 ^b	.65	3.33 ^b	.56	2.81	.62	3.12	.42
	300만원~400만원미만	3.37	.57	3.09 ^b	.78	3.43 ^{ab}	.57	2.66	.72	3.14	.40
	400만원~500만원미만	3.36	.61	2.97 ^b	.77	3.40 ^b	.60	2.92	3.35	3.16	.90
	500만원~700만원미만	3.25	.55	3.08 ^b	.78	3.42 ^{ab}	.56	2.43	.70	3.04	.43
	700만원 이상	3.53	.58	3.46 ^a	.81	3.65 ^a	.78	2.67	.86	3.33	.50
	F	1.427		3.295**		2.624*		.574		2.013	
p	.193		.002		.012		.777		.052		
화장품 구입비	10만원미만	3.34	.56	3.11	.69	3.41	.55	2.64	.71	3.12	.38
	10만원~20만원미만	3.45	.98	3.16	.78	3.44	.64	2.71	.73	3.19	.44
	20만원~40만원미만	3.22	.58	3.02	.87	3.37	.64	3.00	4.08	3.15	1.08
	40만원 이상	3.24	.65	3.23	.92	3.31	.75	2.45	.96	3.06	.64
	F	1.144		2.135		.485		.887		2.186	
p	.335		.076		.693		.472		.070		

*p<.05 ***p<.0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결과, a>b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연령에 따라 자기수용은 40대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3.07, 30대가 3.17로 낮게 나타났다($p < .01$). 이는 연령이 낮고 자기표현에 소극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다는 박혜원(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대인관계의 경우 20대가 3.38로 높게 나타났고, 50대가 3.00으로 낮게 나타나($p < .01$) 50대 여성이 상대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이 3.44로 높은 자기수용을 보였고, 대학생이 3.12로 자기수용이 가장 낮았다($p < .05$). 삶의 목적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졸이 3.47로 높게 나타났고, 고졸이 3.20, 대졸이 3.2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 < .01$). 대인관계에서는 대학생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p < .01$), 개인적 성장에서는 대학생이 3.39, 대학원졸이 3.40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1$). 전체 심리적 안녕감으로 보면 대학생과 대학원졸이 상대적으로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높은 자기수용을 보여($p < .05$) 미혼이 지각된 심리적 안녕감이 낮다라는 김금순(2010)과 박혜원(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직업별 차이에서는 공무원이 3.58로 높은 자기수용을 보였고, 삶의 목적은 전문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 < .01$), 개인적 성장도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5$). 총 심리적 안녕감은 경영 관리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7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자기수용을 보였고($p < .05$), 전체 심리적 안녕감도 소득이 가장 높은 7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5$).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김금화(2011), 이서연(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에 따른 차이에서는 대인관계에서 10만원 미만이 3.24, 10만원~20만원 미만이 3.34로 높게 나타났으며, 40만원 이상이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 < .001$). 전체 심리적 안녕감에서 10만원 미만이 3.22, 10만원~20만원 미만이 3.26으로 높게 나타났고, 40만원 이상이 3.01로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였다($p < .01$). 따라서 화장품 구입비가 많은 사람이 구입비가 적은 사람보다 대인관계의 안정감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변인	항목	자기수용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		총 심리적 안녕감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연령	20대	3.07 ^b	.59	3.44	.78	3.14	.41	3.38 ^a	.84	3.37	.60	3.10	.66	3.25	.41
	30대	3.17 ^b	.56	3.38	.71	3.20	.50	3.18 ^{ab}	.72	3.24	.60	3.04	.56	3.20	.39
	40대	3.41 ^a	.64	3.34	.75	3.12	.50	3.20 ^{ab}	.71	3.31	.51	3.08	.65	3.24	.41
	50대	3.21 ^b	.76	3.16	.76	3.13	.61	3.00 ^b	.83	3.17	.62	3.05	.65	3.12	.43
	F	4.051**		1.798		.614		3.647**		1.600		.295		1.647	
	p	.003		.129		.653		.006		.174		.881		.162	
학력	고졸	3.23 ^{ab}	.63	3.20 ^b	.75	3.11	.56	3.25 ^{ab}	.67	3.19 ^b	.56	3.14	.60	3.19 ^{ab}	.40
	대학생	3.12 ^b	.59	3.47 ^a	.75	3.20	.43	3.31 ^a	.78	3.39 ^a	.57	3.12	.65	3.27 ^a	.39
	대졸	3.21 ^{ab}	.68	3.23 ^b	.68	3.14	.56	3.03 ^b	.84	3.15 ^b	.59	2.97	.61	3.12 ^b	.42
	대학원졸	3.44 ^a	.73	3.47 ^a	.84	3.12	.47	3.09 ^b	.84	3.40 ^a	.62	3.00	.67	3.25 ^a	.44
	F	3.016*		3.885**		.671		3.018*		5.107**		1.916		2.913*	
	p	.030		.009		.570		.030		.002		.127		.034	
결혼 여부	미혼	3.15	.61	3.37	.77	3.14	.46	3.25	.82	3.32	.57	3.07	.65	3.22	.40
	기혼	3.28	.68	3.30	.74	3.16	.54	3.14	.75	3.23	.60	3.06	.61	3.20	.42
	t	4.023*		.769		.237		1.956		1.911		.025		.214	
	p	.046		.381		.627		.163		.168		.874		.644	

직업	학생	3.11 ^c	.57	3.41 ^{ab}	.77	3.17	.41	3.38	.81	3.35 ^{ab}	.59	3.07	.65	3.25 ^{ab}	.39
	사무직	3.17 ^{bc}	.66	3.05 ^b	.76	3.22	.55	2.98	.73	3.06 ^b	.45	2.80	.70	3.05 ^b	.39
	전문직	3.33 ^{abc}	.70	3.55 ^a	.63	3.11	.44	3.09	.80	3.42 ^a	.63	3.12	.60	3.27 ^{ab}	.41
	공무원	3.58 ^a	.93	3.23 ^{ab}	.93	3.10	.66	3.17	1.05	3.40 ^{ab}	.72	2.90	.45	3.23 ^{ab}	.63
	서비스직	3.10 ^c	.56	3.35 ^{ab}	.72	3.09	.55	3.29	.75	3.28 ^{ab}	.56	3.20	.57	3.22 ^{ab}	.38
	경영관리직	3.54 ^{ab}	.80	3.33 ^{ab}	.87	3.42	.51	3.01	.92	3.39 ^{ab}	.61	3.16	.63	3.31 ^a	.50
	가정주부	3.23 ^{abc}	.67	3.13 ^{ab}	.74	3.09	.59	3.07	.74	3.08 ^{ab}	.57	3.01	.64	3.10 ^b	.40
	기타	3.26 ^{abc}	.57	3.45 ^{ab}	.74	3.17	.55	3.27	.51	3.29 ^{ab}	.51	3.17	.58	3.27 ^{ab}	.40
	F	2.173*		2.595*		1.206		1.968		2.994**		1.540		2.108*	
p	.036		.013		.298		.058		.005		.152		.042		
소득	100만원미만	3.26 ^b	.58	3.29	.82	3.02	.57	3.13	.88	3.29	.57	3.13	.68	3.19 ^b	.42
	100만원~200만원미만	3.18 ^b	.54	3.28	.68	3.10	.57	3.29	.60	3.19	.51	2.92	.42	3.16 ^b	.36
	200만원~300만원미만	3.06 ^b	.51	3.28	.64	3.04	.43	3.17	.69	3.23	.56	3.13	.51	3.15 ^b	.36
	300만원~400만원미만	3.20 ^b	.60	3.34	.73	3.18	.47	3.18	.77	3.21	.63	3.06	.63	3.20 ^b	.37
	400만원~500만원미만	3.15 ^b	.68	3.29	.82	3.15	.45	3.18	.84	3.25	.54	3.15	.66	3.19 ^b	.43
	500만원~700만원미만	3.22 ^b	.62	3.38	.75	3.16	.44	3.05	.76	3.30	.54	2.96	.67	3.18 ^b	.39
	700만원 이상	3.54 ^a	.87	3.47	.87	3.37	.60	3.32	.94	3.45	.71	3.10	.78	3.37 ^a	.50
	F	2.173*		.489		1.206		1.968		1.061		1.540		2.108*	
p	.036		.816		.298		.058		.386		.152		.042		
화장품 구입비	10만원미만	3.20	.57	3.35	.75	3.16	.49	3.24 ^a	.74	3.31	.57	3.07	.60	3.22 ^a	.39
	10만원~20만원미만	3.25	.69	3.38	.74	3.18	.53	3.34 ^a	.73	3.30	.59	3.11	.65	3.26 ^a	.42
	20만원~40만원미만	3.20	.69	3.29	.76	3.17	.47	2.94 ^b	.83	3.16	.62	3.05	.61	3.14 ^{ab}	.41
	40만원 이상	3.26	.90	3.11	.77	2.98	.57	2.65 ^c	.92	3.12	.57	2.94	.73	3.01 ^b	.43
	F	.448		1.817		1.366		6.677***		1.200		1.174		3.102**	
p	.774		.125		.245		.000		.310		.322		.016		

*p<.05 **p<.01 ***p<.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결과,

a>b>c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신체매력성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신체매력성은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의 두 가지 하위변인으로 살펴보고, 전체적인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신체매력성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자신감 보완의 경우 표준화계수값 .091로 나타났으며($p < .05$), 타인의식의 경우 표준화계수값 .200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1$). 변화의 즐거움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 .354로 나타났으며($p < .001$), 자기가치 표현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 .186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1$).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 타인의식,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이 사회적 신체매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41.3%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화장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고, 변화를 즐기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쓸수록 사회적 신체매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타인에게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매력적인 외모가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신체 평가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황윤정(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1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사회적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28	.049	.035	.562		
자신감 보완	.100	.049	.091	2.023*		
타인의식	.158	.044	.200	3.561***	.413	53.568***
변화의 즐거움	.327	.061	.354	5.395***		
자기가치 표현	.148	.044	.186	3.336***		

*p<.05 ***p<.001

둘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신체매력성의 하위변인인 개인적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자신감 보완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 .191로 나타났고(p<.001), 변화의 즐거움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380로 나타났으며(p<.001), 자기가치 표현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 .159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이 개인적 신체매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32.2%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으며, 변화를 즐기고,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수록 개인적 신체매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전체적인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같음을 알 수 있다. 화장을 통하여 변화의 즐거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모습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신의 신체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개인적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50	.070	.053	.722		
자신감 보완	.254	.070	.191	3.631***		
타인의식	-.114	.063	-.119	-1.801	.322	36.164***
변화의 즐거움	.424	.086	.380	4.922***		
자기가치 표현	.153	.063	.159	2.423*		

*p<.05 ***p<.001

셋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전체적인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자신감 보완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152로 나타났고(p<.001), 변화의 즐거움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427로 나타났으며(p<.001), 자기가치 표현은 표준화계수값이 .210로 나타나 신체매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001).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이 신체매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45.1%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화장을 통하여 자신감을 보완하고, 자신의 변화를 즐기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더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신체매력성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35	.044	.050	.791		
자신감 보완	.151	.045	.152	3.398***		
타인의식	.068	.040	.095	1.692	.451	62.597***
변화의 즐거움	.357	.055	.427	6.504***		
자기가치 표현	.152	.040	.210	3.770***		

***p<.001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자기효능감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 4개의 하위변인으로 분석한 후, 전체적인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표 15>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다음과 같다. 자신감 보완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193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의 즐거움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209로 나타나($p < .05$)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1$).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과 변화의 즐거움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4.6%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을 통하여 자신감을 보완하고, 자신의 화장 한 모습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사고모임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55	.076	-.058	-.726		
자신감 보완	.257	.076	.193	3.377***		
타인의식	-.017	.069	-.018	-.246	.046	3.687**
변화의 즐거움	.233	.094	.209	2.491*		
자기가치 표현	.033	.069	.034	.475		

*p<.05 ***p<.001

둘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과제 난이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과제난이도 선호에는 자신감 보완이 표준화계수값이 .177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05).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은 과제 난이도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각각 5.6%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을 통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자신감을 얻게 됨으로써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려는 욕구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6>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과제 난이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64	.080	.065	.803		
자신감 보완	.246	.080	.177	3.065**		
타인의식	-.004	.072	-.004	-.049	.056	4.478***
변화의 즐거움	.070	.099	.060	.704		
자기가치 표현	.060	.072	.059	.825		

p<.01 *p<.001

셋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자신감 보완이 표준화 계수값 .190으로 나타났으며(p<.001), 타인의식은 표준화계수값이 .157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서 자신감 보완, 타인의식의 경우 자기조절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14.5%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을 통하여 자신감을 찾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은 외모관리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김현정(2009), 조기여, 유태순(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17>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38	.061	.048	.624		
자신감 보완	.212	.061	.190	3.451***		
타인의식	.126	.055	.157	2.267*	.145	12.935***
변화의 즐거움	.139	.076	.149	1.839		
자기가치 표현	.064	.055	.079	1.151		

*p<.05 ***p<.001

넷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의 경우 화장의 자신감 보완이 표준화계수값 .151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p<.01$).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의 경우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6.2%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자신감을 얻기 위하여 화장하는 사람들은 위협적인 상황이나 큰 문제가 발생하여도 높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138	.163	.068	.846		
자신감 보완	.428	.163	.151	2.622**		
타인의식	.000	.147	.000	.003	.062	4.992***
변화의 즐거움	-.123	.201	-.052	-.611		
자기가치 표현	-.122	.147	-.059	-.828		

p<.01 *p<.001

다섯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전체적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자신감 보완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286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11.8%로 나타났다.

화장을 통하여 자신감을 보완하려 할수록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을 스스로 높게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인관계에서 외모의 중요성을 알고,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일 처리 능력이 뛰어나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과제를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에 관심이 높다는 김현정(200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19>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46	.056	.065	.822		
자신감 보완	.286	.057	.286	5.061***		
타인의식	.026	.051	.036	.511	.118	10.193***
변화의 즐거움	.081	.070	.096	1.162		
자기가치 표현	.008	.051	.011	.159		

***p<.001

5.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을 자기수용,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 등의 6개의 하위변인으로 분석한 후, 전체적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자신감 보완은 표준화계수값이 .219로 나타났으며, 변화의 즐거움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225로 나타나($p < .01$) 화장의 자신감과 변화의 즐거움은 자기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 < .001$).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변화의 즐거움과 자신감 보완은 자기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설명력은 7.8%로 나타났다.

화장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자신감을 회복하려 하며, 변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태도가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표 20>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76	.067	.089	1.145		
자신감 보완	.264	.067	.219	3.947***		
타인의식	.053	.060	.062	.881	.078	6.475***
변화의 즐거움	.227	.082	.225	2.762**		
자기가치 표현	-.012	.060	-.013	-.192		

** $p < .01$ *** $p < .001$

둘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삶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자신감 보완은 표준화계수값이 .140으로 나타났다($p < .05$).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은 삶의 목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화장을 통하여 자신감을 보완하려는 집단은 진취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삶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06	.080	-.006	-.075		
자신감 보완	.195	.080	.140	2.431*		
타인의식	-.058	.072	-.058	-.804	.048	3.805
변화의 즐거움	.075	.099	.064	.756		
자기가치 표현	.052	.072	.051	.714		

* $p < .05$

셋째, <표 22>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환경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며, 자신감 보완에서 표준화계수값 .129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이 환경 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설명력은 8.8%로 나타났다.

화장을 통하여 자신감을 보완하려는 집단은 자기 외모를 향상시키려는

의식이 높기 때문에 외모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환경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28	.054	-.043	-.526		
자신감 보완	.121	.054	.129	2.241*		
타인의식	.039	.049	.058	.805	.088	7.354***
변화의 즐거움	.098	.067	.125	1.472		
자기가치 표현	-.024	.049	-.035	-.485		

*p<.05 ***p<.001

넷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표 23>과 같으며, 자신감 보완은 표준화계수값이 .134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화장을 통하여 자신감을 보완하려는 집단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로 만족스럽고, 신뢰감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49	.084	-.047	-.583		
자신감 보완	.194	.084	.134	2.320*		
타인의식	.010	.076	.010	.135	.026	2.004
변화의 즐거움	.125	.103	.103	1.209		
자기가치 표현	-.014	.076	-.014	-.190		

*p<.05

다섯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개인적 성장에는 자신감 보완의 표준화계수값이 .168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은 개인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4.6%로 나타났다.

화장을 통하여 단점을 보완하여 자신감을 상승시키려는 집단은 자기 개발 함으로써 자기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03	.062	-.004	-.053		
자신감 보완	.182	.062	.168	2.922**		
타인의식	-.023	.056	-.029	-.403	.046	3.704
변화의 즐거움	.114	.077	.125	1.487		
자기가치 표현	.043	.056	.055	.767		

**p<.01

여섯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전체적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자신감 보완의 경우에 표준화계수 값이 .227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8.4%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화장을 통하여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자신감을 얻으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잘 통제하고, 타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얻을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박혜원(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표 25>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N=38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적극성 상승	-.005	.043	-.010	-.121		
자신감 보완	.172	.043	.227	3.983***		
타인의식	-.005	.039	-.009	-.123	.084	7.025***
변화의 즐거움	.100	.053	.158	1.890		
자기가치 표현	.013	.039	.023	.323		

***p<.00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신체매력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1) 신체매력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신체매력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 4개의 하위변인으로 분석한 후, 전체적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26>과 같으며, 사회적 신체매력성의 표준화계수값이 .119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 < .05$). 따라서 사회적 신체적 매력성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성공에 신체매력성이 중요하고, 매력적인 외모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6> 신체매력성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388)

신체매력성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사회적 신체매력성	.145	.066	.119	2.180*	.032	6.38**
개인적 신체매력성	.095	.055	.094	1.724		

* $p < .05$ ** $p < .01$

둘째, <표 27>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과제 난이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으로 개인적 신체매력성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355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001$). 따라서 개인적 신체매력성의 경우 과제 난이도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11.2%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7> 신체매력성이 과제 난이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

(N=388)

신체매력성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사회적 신체매력성	-.075	.066	-.059	-1.130	.112	24.27***
개인적 신체매력성	.372	.055	.355	6.755***		

*** $p<.001$

셋째,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사회적 신체매력성은 표준화계수값이 .348로 나타났으며($p<.001$), 개인적 신체매력성은 .122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05$). 따라서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증가하였으며, 설명력은 17%로 나타났다.

외모가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정확하며,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8> 신체매력성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388)

신체매력성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사회적 신체매력성	.352	.051	.348	6.853***	.170	39.22***
개인적 신체매력성	.102	.042	.122	2.405*		

*p<.05 ***p<.001

넷째,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사회적 신체매력성의 표준화계수값이 -.169로 부적으로 나타났으며(p<.01), 개인적 신체매력성은 .122로 나타나 자신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5). 따라서 사회적 신체매력성이 낮고, 개인적 신체매력성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증가하였으며,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가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낮고,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외모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9> 신체매력성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N=388)

신체매력성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사회적 신체매력성	-.435	.141	-.169	-3.078**	.027	5.31**
개인적 신체매력성	.259	.117	.122	2.218*		

*p<.05 **p<.01

다섯째, 신체매력성이 전체적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개인적 신체매력성은 표준화계수값이 .276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 < .001$). 따라서 개인적 신체매력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신에 대한 효율성을 느끼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신체매력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자기효능감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능함을 인정받는 효과를 지닌다는 정효선, 최수근, 윤혜현(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표 30>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388)

신체매력성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사회적 신체매력성	-.003	.049	-.004	-.070	.075	15.63***
개인적 신체매력성	.207	.040	.276	5.154***		

*** $p < .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파악하고, 자립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신체 매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사회적 신체 매력성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 문제 발생 시 불안해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나 데이트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신체매력성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에서 낮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신체매력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신체매력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을 자기수용,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 등의 6개의 하위변인으로 분석한 후, 결론적으로 6개의 변인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첫째, 신체매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사회적 신체매력성은 표준화계수값이 .134로 나타났으며($p < .01$), 개인적 신체매력성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331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1$). 따라서 신체매력성에서 사회적 신체매력성, 개인적 신체매력성의 경우 자기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12.5%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리적 현상, 가치관을 인정하고,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매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의식이 높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31> 신체매력성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N=388)

신체매력성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사회적 신체매력성	.146	.056	.134	2.634**	.125	27.588***
개인적 신체매력성	.299	.046	.331	6.500***		

p<.01 *p<.001

둘째, 신체매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삶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사회적 신체매력성은 표준화계수값이 .161으로 나타나 삶의 목적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01). 개인적 신체매력성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 -.176로 나타나 부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따라서 신체매력성 중에서 사회적 신체매력성은 삶에 목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신체매력성의 경우에는 삶의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설명력은 5.4%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성이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목적을 재정립하며, 과거 실수에 대해 반성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개인적 신체매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은 현재 삶의 목표나 그것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신체매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족감과 자의식이 높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 신체매력성이 삶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

(N=388)

신체매력성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사회적 신체매력성	.203	.069	.161	2.944**	.054	11.026***
개인적 신체매력성	-.184	.057	-.176	-3.215***		

p<.01 *p<.001

셋째, 신체매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환경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으며, 환경 통제력에 따른 사회적 신체매력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120으로 나타나(p<.05)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신체매력성 중에서 사회적 신체매력성의 경우 환경 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12.8%로 나타났다.

<표 33> 신체매력성이 환경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N=388)

신체매력성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사회적 신체매력성	.102	.047	.120	2.176*	.128	28.160***
개인적 신체매력성	.009	.039	.013	.230		

*p<.05 ***p<.001

넷째, 신체매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34>와 같으며, 개인적 성장에 따른 사회적 신체매력성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132으로 나타나(p<.05)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

며,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매력성에서 사회적 신체매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신체매력성이 개인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N=388)

신체매력성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사회적 신체매력성	.130	.054	.132	2.388*	.049	9.900***
개인적 신체매력성	.005	.045	.006	.102		

*p<.05 ***p<.001

다섯째, 신체매력성이 전체적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5>와 같으며, 사회적 신체매력의 경우에 표준화계수값이 .154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p<.01). 따라서 신체매력성에서 사회적 신체매력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명력은 9.5%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매력성을 낮게 인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육근영, 윤지원, 김근향, 박지혜 (2009) 연구와 일치한다.

<표 35> 신체매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N=388)

신체매력성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사회적 신체매력성	.106	.038	.154	2.804**	.095	20.313***
개인적 신체매력성	.003	.031	.004	.081		

p<.01 *p<.001

신체매력성이 대인관계와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없었다.

7.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동시에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모형3에서 조절효과인 상호작용효과의 표준화계수값이 .870로 나타나($p < .05$)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설명력은 4.3%로 나타났다. 즉, 화장을 통하여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신체매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사교모임에 적응이 빠르고, 새로운 사람을 쉽게 사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6>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388)

모형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148	.080	.094	1.851	.009	3.425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041	.101	-.026	-.403	.032	6.391**
	신체매력성	.260	.085	.194	3.047**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771	.367	-.488	-2.100*	.043	5.722*
	신체매력성	-.407	.333	-.304	-1.22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적매력성	.204	.099	.870	2.068*		

*p<.05, **p<.0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과제 난이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모형3에서 조절효과인 상호작용효과의 표준화계수값이 1.340로 나타나(p<.001)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과제 난이도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7.0%로 나타났다. 즉, 화장을 통하여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신체매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피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7>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과제 난이도 선호에 미치는 영향

(N=388)

모형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164	.084	.099	1.957	.010	3.831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077	.105	-.046	-.732	.045	8.935***
	신체매력성	.331	.089	.237	3.730***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1.253	.379	-.759	-3.309***	.070	9.580***
	신체매력성	-.742	.344	-.531	-2.160*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적매력성	.329	.102	1.340	3.229***		

*p<.05, ***p<.00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적 매력성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 모형3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에 대한 상호작용효과의 표준화계수값이 .088로 나타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조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388)

모형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404	.064	.306	6.306***	.094	39.765***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116	.078	.088	1.486	.172	39.762***
	신체매력성	.396	.066	.354	6.011***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404	.064	.306	6.306***	.203	32.498***
	신체매력성	1.638	.218		7.520***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적매력성	.116	.078	.088	1.486		

***p<.00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적 매력성이 전체적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 모형3에서 조절효과인 상호작용효과의 표준화계수값이 1.17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따라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동시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형3의 설명력은 6.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화장을 통하여 대인관계의 효과를 상승시키고, 자신의 신체매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던 것은 이현옥, 구향숙(2009), 이승희, 박길순(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39>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388)

모형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116	.060	.098	1.936	.010	3.750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048	.075	-.041	-.642	.041	8.252***
	신체매력성	.226	.064	.226	3.555***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791	.273	-.667	-2.899**	.061	8.270***
	신체매력성	-.451	.248	-.450	-1.82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적매력성	.208	.073	1.179	2.829**		

p<.01 *p<.00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동시에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없었다.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동시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으로 독립변인을 투입한 결과는 <표 40>과 같다. 모형3에서 조절효과인 상호작용효과가 표준화계수값의 경우에 2.057로 나타나(p<.001)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설명력은 19.6%로 나타났다. 즉, 화장을 통하여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신체매력성을 긍정적으로

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수용하는 긍정적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수용에 미치는 영향

(N=388)

모형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354	.070	.248	5.037***	.062	25.375***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050	.086	.035	.584	.136	30.304***
	신체매력성	.417	.072	.346	5.755***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1.508	.303	-1.058	-4.973***	.196	31.157***
	신체매력성	-1.003	.275	-.832	-3.648***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적매력성	.435	.082	2.057	5.341***		

***p<.00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환경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으로 독립변인을 투입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모형3에서 조절효과인 상호작용효과가 표준화계수값의 경우에 -.275로 나타나 유의한 상호작용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환경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N=388)

모형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061	.057	.055	1.085	.003	1.178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032	.072	-.029	-.451	.014	2.805
	신체매력성	.128	.061	.136	2.103*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130	.263	.117	.495	.015	2.005
	신체매력성	.275	.238	.293	1.159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적매력성	-.045	.071	-.275	-.643		

*p<.05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전체적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모형3에서 조절효과인 상호작용효과의 표준화계수값이 .937로 나타나(p<.05)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화장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예의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높고, 자신의 신체 매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경향을 보여 박혜원(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4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N=388)

모형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베타	t	R ²	F
1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069	.046	.077	1.510	.006	2.279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017	.057	-.019	-.302	.021	4.115*
	신체매력성	.118	.049	.156	2.433*		
3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482	.209	-.537	-2.302*	.034	4.547**
	신체매력성	-.305	.190	-.402	-1.607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적매력성	.130	.056	.973	2.307*		

*p<.05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삶의 목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대~5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20대~50대 성인여성 388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첫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적극적 상승의 경우에는 30대~50대 여성이 20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 상승, 타인의식,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은 대학원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도 대학원졸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감 보완은 기혼 여성이 높았으며, 자기가치 표현의 경우에는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적극성 상승, 자기가치 표현, 총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서 경영관리직이 다른직업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적극성 상승과 변화의 즐거움이 높게 나타났고, 화장품 구입비가 많을수록 적극성 상승이 높았으며, 화장품 구입비가 낮을수록 자신감 보완이 높았다.

둘째, 신체매력성 중에서 개인적 신체매력의 경우에 4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신체매력성의 중요도와 자기의 개인적 신체매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결혼여부별로 보면 미혼이 기혼보다 사회적 신체매력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직업별로는 경영관리직이 사회적 신체매력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개인적 신체매력에서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로 40만원 이상 지출하는 집단이 개인적 신체매력성과 총 신체매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 중에서 과제 난이도 선호, 자신감, 총 자기효능감은 공무원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군이 높은 자기조절 효능감을 보였다.

넷째, 심리적 안녕감 중에서 자기수용의 경우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가 가장 낮았으며, 대인관계의 경우 20대가 높았고, 50대가 낮게 나타났다. 자기수용과 삶의 목적은 학력이 높은 대학원졸이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는 대학생이 높았으며, 개인적 성장과 총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과 대학원졸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이 미혼보다 높은 자기수용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높은 자기수용을 보였고, 삶의 목적과 개인적 성장은 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으나,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에서는 화장품 구입비가 적은 집단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첫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신체매력성은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의 두 가지 하위변인으로 살펴보고,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 타인의식,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표현이 사회적 신체매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개인적 신체매력성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에서 자신감 보완과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신체매력성은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 변화의 즐거움, 자기가치 표현이 신체매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자기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 4개의 하위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 변화의 즐거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과제 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과 타인의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전체적인 자기효능감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수용, 삶의 목적, 환경 통제력,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 등 6개의 하위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삶의 목적과 환경 통제력,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수용에는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과 변화의 즐거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심리적 안녕감에는 자신감 보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 신체매력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첫째, 사회적 신체매력성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 신체매력성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

인인 과제 난이도 선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에는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에는 사회적 신체매력성이 긍정적으로, 개인적 신체매력성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적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신체매력성 중에서 사회적 신체매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수용에는 사회적 신체매력성과 개인적 신체매력성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삶의 목적에는 사회적 신체매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개인적 신체매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인 환경 통제력과 개인적 성장에는 사회적 신체매력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첫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은 동시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개의 독립변인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은 동시에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 중 자기수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으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0대

여성들이 화장의 사회심리적 효과에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고학력, 고소득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매력성,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가 신체매력성과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 중 자신감 보완이 신체매력성과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화장이 예뻐지는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넘어 타인에 대한 예의수행은 물론 화장을 하였을 때 자신감이 상승되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돕는 사회심리적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화장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수단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자기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신체를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매력적인 외모가 대인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모관련 산업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가 될 것이다. 이에 여성들의 화장심리를 파악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임의표집 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을 두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그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아니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녀 모두 외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남성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장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남성전용 비크림이나 선크림, 에센스 등의 제품들이 출시되는 등 남성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여성보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남성에게 많은 영향을 주리라 사료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사회심리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표준화된 척도 개발을 통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명주 (2008). 눈 화장에 따른 형태변화와 이미지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범서 (1994). 행복의 윤리학. 서울: 소화.
- 곽호근 (2008). 대학생의 이미지 평가 및 이미지 형성이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대훈 (2009).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금순 (2011).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순 (2006). 대학생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범, 차영란 (2006). 여성의 화장을 통한 미(美)와 자기개념의 사회문화적 의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1(1), pp. 107-123.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5(2), pp. 19-39.
- 김민제 (2011). 20세기 후반 한국 여성의 화장(Make-up) 문화와 이미지 연구 : 여성잡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성 (2011). 자기에성향별 신체매력성 지각이 미용추구혜택 및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 (2009). 여성의 연령별 화장 및 미용성형행동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 & IT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미 (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은, 이은순, 강순화 (1997). 한국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 집문당.

- 김준희, 정명선 (2012). 의복가치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20(6), pp. 854-868.
- 김현정 (2009). 남녀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과 외모관련태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선옥 (2011).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연구 : 20, 30,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大坊 郁夫, 神山 進 (2005). 조기여, 유태순 역. 의복과 화장의 사회심리학: 사람은 왜 꾸미는 것일까. 서울: 동서교류.
- 류정희, 이명자 (2007).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4(1), pp. 55-77.
- 문정순 (2010). 마음챙김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공상자각과 인지적 탈융합의 매개에 초점을 둔 구조모형과 Q유형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혜경, 유태순 (2001).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우울성향 및 스트레스에 따라 의복태도와 화장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51(5), pp. 77-94.
- 문혜경, 유태순 (2003).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와 의복태도 및 화장도에 관한 연구. *복식*, 53(4), pp. 101-112.
- 박미선 (2011). 성격유형에 따른 감성지능, 심리적 웰빙, 직무성과 간의 인과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아 (2003). 화장의 심리사회적 의미: '보여주기'의 미학. *한국심리학회지*, 4(2), pp. 105-127.
- 박정혜 (2002). 추구의복이미지와 의복태도에 따른 색조화장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원 (2013). 자기표현,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

- 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ndura, A.,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역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파주: 교육과학사.
- 배선영, 박길순 (2011). 심리적 안녕감에 따른 네일관리행동 연구. 복식문화연구, 19(6), pp. 1235-1246.
- 류지효 (2005). 한국 여성의 전통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은혜 (2012). 자기에성향, 신체 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현진 (2011). 자기효능감, 목표지향성, 귀인성향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정인 (2011). 대학생의 대상관계가 긍정적 심리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리개별화,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명환 (1998). 신체활동과 심리적 행복감: 인지적-정서적 상태 측정지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2), pp. 113-123.
- 양전순 (2009). 6가지 얼굴형에 어울리는 화장기법과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계화 (2005).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생성감과 심리적 웰빙,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육근영, 윤지원, 김근향, 박지혜 (2009). 여대생의 신체상 지각 불일치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4(4), pp. 665-682.
- 이경희A (2011). 대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외모만족의 매개효과분석.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B (2011). 대학생의 위험요인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명확성과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 (2000). 자기모니터링,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화장품 구매행동 및 사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5), pp. 771-784.
- 이서연 (2008). 댄스스포츠 참가자의 자아이미지와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경, 고애란 (2006). 외모향상추구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1), pp. 59-70.
- 이승아, 전병관 (2007).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6(4), pp. 341-350.
- 이승희, 박길순 (2011).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 *복식문화연구*, 19(5), pp. 1075-1087.
- 이유종 (2010).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매력인지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 박길순 (2011). 자기모니터링과 자기의식이 화장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9(4), pp. 766-779.
- 이현옥, 구양순 (2009).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계층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2), pp. 271-277.
- 이화순 (200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화순, 황춘섭 (2002).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52(8), pp. 137-149.
- 장미선 (2003).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가족변인.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숙 (2010). 여성의 외모관리와 체형관리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준선 (2006).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선 (2003). 성인 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3(3). pp. 165-179.
- 정미실 (2007). 여대생의 화장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1), pp. 35-45.
- 정혜순 (2006). 자아개념, 자기조절학습, 자기효능감 및 미술학습 성취동기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효선, 최수근, 윤희현 (2009). 호텔 직원의 신체적 매력도가 개인적무적합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4(6), pp.711-720.
- 정희영 (2010).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경희 (2005). 항공사승무원의 신체적 매력성이 대인지각과 서비스수행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얼굴 매력성과 체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기여, 유태순 (1997). 자기효능감, 화장근접도, 의복근접도의 상관관계. *복식*, 32, pp. 183-200.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1(3), pp. 321-337.
- 최수경 (2007).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수경, 강경자 (2007).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매체접촉에 따른 여성의 화장행동과 화장 후 심리적 기대효과.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7(1), pp. 81-95.
- 최승용, 이창욱 (2005). 호텔 서비스 인카운터에서 종사원의 신체적 매력요인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arch*, 21, pp. 43-60.
- 하중경 (2009). 외모관리동기에 따른 의복 및 화장행동. *한국지역사회생활*

- 과학회지, 20(3), pp. 385-396.
- 하태민 (2009).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뇌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소년을 중심으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진숙, 김윤희 (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pp. 143-155.
- 資生堂研究所編 (1993). 化粧心理學. フラクランスシヤール社.
- Allport, G. W. (1985).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 Aune, R. & Aune. K. S. (1994). The influence of culture, gender, and relational status on appearance manag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5(2), pp. 258-272.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pp. 117-148.
- Becker, L. C. (1992). Good lives: Prolegomena.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9, 15-37.
- Brown, T. A., Cash, T. F. & Noles, S. W. (1986). Percep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among college students : Selected determinants and methodological matte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6(3), pp. 305-316.
- Bruch, M. A., Berko. E. H. & Haase, R. F. (1998). Shyness, masculine

- ideology,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pp. 84–97.
- Cash, T. F., & Prunzinsky (1990).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Cash, T. F., Dawson, K., Davis, P., Bowen, M., Galumbeck, C. (1989). Effects of cosmetics use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of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3), pp. 349–355.
- Cash, T. F., Trimer, C. (1984) Sexism and beautyism in women evaluations of peer performance. *Sex Roles*, 10, pp. 87–98.
- Creekmore, A. M. (1974). Clothing related to baby satisfaction and perceived peer sell. *Michigan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Research Report*, 239, pp. 2–1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 542–575.
- Dipboye, R. L., Arvey, R. D. & Terpstra, D. E. (1997). Sex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rater and applicants as determinants of resume evalu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pp. 228–294.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pp. 130–140.
- Feldman, R. S. (1995). *Social psychology*, New Jersey: Prentice Hall.
- Fordyce, W. E. (1988). Pain and suffering: A reappraisal, *American Psychologist*, 43.
- Gabriel, M. T. Critelli, J. W. & Ee, J. S. (1994). Narcissistic illusions in self-evaluations of intelligence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62, pp. 145–155.

- Graham, J. A., Jouhar, A. J. (1981). The effect of cosmetics on person per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3, pp. 199–210.
- Graham, J. A., Jouhar, A. J. (1983). The importance of cosmetics in the psychology of appear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 22(3), pp. 153–156.
- Graham, J. E. & Kligman, A. M. (1985).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 New York: Prager Publisher.
- Hansen, C. H. & Hansen, R. D. (1998). Finding in crowd : An anger superiority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pp. 917–924.
- Hong, K. H. (2008). The influence of male college student's extent of mass media exposure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orien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7), pp. 1149–1159.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Fairchild Pub.
- Ko, S. J. & Chung, J. K. (1992). Beauty and oppression : The impacts of cultural myth on wome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8(1), pp. 33–70.
- Mahoney, E. R. & Finch, M. D. (1976). The dimensionality of body cathexis. *Journal of Psychology*, 92, pp. 277–279.
- Mathes, E. W., Brennan, S. M., Haugen, P. M. (1985). Rating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s a function of ag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5, pp. 157–168.

- McDowel, I. & Newell, C. (1990).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r, C. T. (1982). The role of performance related similarity in social comparison of abilities : a test of the related attributes hypothesi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3), pp. 513–523.
- Ryan, R. M. & Deci, E. L. (2001). Oh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ical*, 5(2), pp. 141–16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pp. 1069–1081.
- Ryff (1997). Experience and well-being: Exploration an domains of life and how the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2), pp. 193–206.
- Rudd, N. A., Lennon, S. J. (2000).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thics Research Journal*, 11(2), pp. 189–196.
- Schunk, D. H. (1982). Modelling and attributional feedback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A self-efficacy anai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pp. 93–105.
- Wood, R. E., Mento, A. J. & Locke, E. A. (1987). Task complexity as a moderator of goal effects: A meta 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pp. 416–425.

ABSTRACT

**Influence to affect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self-efficacy sense of nature of body fascination, and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Cho, An -Jin

**Department of Cloth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grasping the relation of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nature of body fascination, self-efficacy sense and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of makeup on adult women of 20s-50s and examining the difference of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nature of body fascination, self-efficacy sense and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of makeup which is based on demographic feature.

As for study method, this researcher used questionnaire method.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was composed of 5 factors such as positive rise, change joy,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other people consciousness, and expression of self-value, and nature of body fascination was composed of 3 low-ranking factors such as nature of individual body fascination and nature of social body fascination, and self-efficacy sense was composed of 4 factors such as self-confidence sense, social

self-efficacy sense, self-control efficacy sense, and preference of degree of difficulty of subject, and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was composed of 6 factors such as self-reception, personal relation, control power of environment, autonomy, goal of life, and individual growth.

Survey subjects were 388 adult women of 20s-50s. And, as for statistical disposal, this researcher execute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ange verification of Dunca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WIN 21.0 program.

1

Thi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that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difference of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nature of body fascination, self-efficacy sense, and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which is based on demographic variable factors, women of 30s-50s showed higher than 20s in case of positive rise out of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In positive rise, change joy, other people consciousness, and self-value expression, graduate school graduates showed highest. And, in total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also, graduate school graduates showed high. In addition, in the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married women were high. And, in case of self-value expression, unmarried women showed higher than married women. As for the classification by jobs, managerial job showed higher than other job groups in positivity rise, self-value expression, and total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As monthly average income of home was high, positivity rise and change joy showed high. And, as monthly average buying expense of cosmetic was much, positivity

rise was high.

And, as monthly buying expense of cosmetic was low,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was high.

Out of nature of body fascination, in case of individual body fascination, 40s showed high, and 20s were low relatively. As school career was high and income was high, they evaluated nature of body fascination high. In addition, to see by marriage or unmarried state, unmarried women showed high marks in nature of body fascination. And, in individual body fascination, public servant showed relatively high marks. It emerged that group to expend 400 thousand Won or more as monthly average buying expense of cosmetic evaluates nature of individual body fascination and nature of total body fascination.

Out of self-efficacy sense, in preference of degree of difficulty of subject, self-confidence sense, and total self-efficacy sense, public servants were highest. And, to see by monthly average income of home, high income group over 7 million Won showed high self-control efficacy sense.

Out of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in case of self-reception, 40s showed highest, and 20s showed lowest.

And, in case of personal relation, 20s were high, and 50s showed low. In self-reception and goal of life, graduate school graduates that school career was high showed high. And, in personal relation, university students were high. And, in individual growth and total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 school graduates showed high. To see by marriage or unmarried state, married women showed self-reception to be higher than unmarried women. And, to see by jobs, public servants showed high self-reception. And, in goal of life and individual

growth, profession showed relatively high. In addition, to see by monthly average income of home,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was high in group that income was highest. But, to see by monthly average buying expense of cosmetic,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was high in group that buying expense was relatively low.

Second, as the result that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influence that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has on nature of body fascination, self-efficacy sense, and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in nature of body fascination, out of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change joy, self-value expression had affirmative influence.

And, in nature of social body fascination,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and other people consciousness had affirmative influence. In addition, it emerged that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and self-value expression had affirmative influence in individual body fascination.

In self-efficacy sense, it emerged that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had affirmative influence out of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On social self-efficacy sense,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by makeup and change joy had affirmative influence.

In addition, it emerged that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by makeup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preference of degree of difficulty of subject and self-confidence sense. Out of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and other people consciousness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efficacy sense of self-control.

Out of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whole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goal of life, control

power of environment, personal relation, and individual growth. And,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and change joy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self-reception.

Third, as the result that this researcher examined self-efficacy sense which is based on nature of body fascination and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nature of individual body fascination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self-efficacy sense out of nature of body fascination, and nature of social body fascination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social self-efficacy sense. Individual body fascination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preference of degree of difficulty of subject. And, it emerged that nature of social body fascination and nature of individual body fascination acted on efficacy sense of self-control and that nature of social body fascination acted affirmatively and nature of individual body fascination acted negatively in self-confidence sense.

Out of nature of body fascination, social body fascination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And, nature of social body fascination and nature of individual body fascination acted on self-reception affirmatively. In the survey of influence to affect goal of life, nature of social body fascination showed affirmatively, and nature of individual body fascination had negative influence.

It emerged that nature of social body fascination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control power of environment and individual growth.

Fourth, as the result that this researcher examined influence that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and nature of body fascination had on self-efficacy sense and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it emerged that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and nature of body fascination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self-efficacy sense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2 independent variable factors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social self-efficacy sense and preference of degree of difficulty of subject which are low-ranking variables respectively.

It emerged that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and nature of body fascination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at the same time, and they had affirmative influence on self-reception out of low-ranking variable factor of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To generalize above result, it emerged that women of 40s who are playing an active part actively socially are showing high expectation on socio-psychological effect of makeup and that people of high school career and high income evaluate nature of own body fascination, self-efficacy sense and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high.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of makeup has very high influence on nature of body fascination, self-efficacy sense and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Especially, out of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effect of makeup, it emerged that supplementation of self-confidence sense had most influence on nature of body fascination, self-efficacy sense, and psychological public peace sense. So, it could be seen that many women avoid contact with others and show negative attitude in personal relation when they don't make up. This means that women make etiquette performance for others over function as means to become pretty, and also, it is deemed that socio-psychological expectation to help positive society activity was reflected by the rise of self-confidence sense in making up.

화장심리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화장심리에 관한 연구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의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행동하던 바를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 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지도교수: 김경희, 연구자: 조안진

☺ 다음은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V표로 정확히 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장을 하면 목소리 톤이 밝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2. 화장을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화장을 한 내 모습에서 성적 매력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초라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잘 마주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화장을 하면 걸음걸이가 활발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화장을 하면 안심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화장을 하면 화려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9. 화장을 한 내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화장을 하면 더 성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1. 화장을 하지 않고 타인을 만나는 것을 실례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회생활에 있어서 화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화장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화장을 한 내 모습을 보면 더 여성스러워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화장을 하면 같은 옷을 입더라도 잘 어울려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화장을 하면 대화에 잘 참여하고 동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화장을 하면 마음에 의욕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화장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아파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화장을 하지 않고 외출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1. 외출해서도 화장을 고치는 등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22.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 화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화장을 하는 것은 기본 에티켓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유행하는 화장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5. 화장은 나의 개성을 돋보이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6. 만나는 사람과 장소에 따라 화장법을 바꾼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신체매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V표로 정확히 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신체매력은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매력적인 사람이 매력 없는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피부가 좋게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 친구를 사귄 때 신체매력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몸은 섹시한 매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청결하게 보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얼굴의 장,단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데이트 상대자와 만날 때 신체매력은 어느정도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신체매력은 영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옷을 입지 않은 내 몸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14. 신체매력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V표로 정확히 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계획을 세우면 바로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계획을 세울 때 성공할 확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렵게 느껴지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거의 이루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자립심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려운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호감이 있더라도 사귀기 어려운 사람은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사교 모임에서 어찌할바를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일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㉔ 다음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V표로 정확히 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과거에 실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그동안 나는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을 바꿔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가끔 매일 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하면 흐뭇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사람들 의견과 반대될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잘 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롭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1.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③	④	⑤
22.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나의 결정을 쉽게 바꾸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㉞ 다음의 일반적 사항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연령 만 _____ 세

㉞ 다음 물음에 V표로 정확히 답하여 주십시오.

1. 학력

① 고졸 ② 대학생 ③ 대졸 ④ 대학원졸

2. 결혼 유무

① 미혼 ② 기혼

3. 직업

① 학생 ② 사무직 ③ 전문직 ④ 공무원 ⑤ 서비스직 ⑥ 경영관리직 ⑦ 가정주부
⑧ 무직 ⑨ 기타 _____

4. 가정의 평균 월수입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5. 월평균 화장품 구입비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 20만원 미만 ③ 20만원 ~ 40만원 미만
④ 40만원 ~ 50만원 미만 ⑤ 50만원 ~ 60만원 미만 ⑥ 60만원 이상